

디자인 충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전문센터

Vol.10 June. 2020

발행

2020년 6월 30일

발행인

윤 황

발행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041-840-1123

www.cpdcre.kr

기획

박혜은

디자인 및 편집

김성희 · 오병찬 · 강경연

협력기관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제작 · 인쇄

삼성애드피아

CONTENTS

Issue

- 002 공공건축을 통해 변화되는 도시 공간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임종현 팀장
- 010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의 웹 기반
공공건축지원 업무 시스템 강경연 책임연구원

Level up

- 020 당진시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성과와 과제 차주영 박사

Review

- 032 탈식민주의 문화 “플라우 피낭(Pulau Pinang)”
: 비의도적 디자인과 일상 순응적 도시 이종세 교수
- 044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의 스마트 그린오피스 김준연 교수

Team 당진시

- 062 의여차 줄로 하나 되는 문화거리 조성사업 류미순 팀장

Focus on 센터소식

- 072 ‘2020 경관·공공디자인·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 워크숍’ 지원
- 074 광역도 최초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승인,
전국 최초 온라인 업무 시스템 적용
- 075 2014~2019 연구성과

국내 정책동향

- 078 중앙부처
- 085 광역지방자치단체
- 096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공공건축을 통해 변화되는 도시 공간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_임종현 팀장

우리 도시공간의 공공건축

공공의 가치를 중요시 생각하는 공공건축은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에 공공건축은 단순히 행정기능에 충실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상생활에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사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그 기능과 의미가 변모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장소로서 그 활용 행태가 복합화·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역할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음 세대가 접하게 될 도시의 공공건축은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의 도시·건축과도 다를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산업 구조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건축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건축설계 역시 표준화,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하는 공급자 중심의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장소가 가지는 물리적 특성, 역사·문화 등의 고유한 이야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건축 산업은 도시가 지닌 장소적 정체성과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건축기획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공건축의 사업 추진에 있어 초기 건축기획이 잘 이루어진 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이나 사업 기간의 연장, 공사비용의 증액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 품질 제고에 효과적이다. 이는 많은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와 같은 행정 및 예산의 효율적 활용 측면뿐만이 아니라, 공공건축물이 도시에서 수행하는 역할 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건축기획을 통해 주변 도시조직과의 관계, 시설 개관 이후 운영방안, 시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고려하는 등 공공건축의 가치를 크게 향상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민간건축 부문에서는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가 협업하여 사업 콘텐츠를 구상하고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 중심의 건축서비스산업’ 업무 형태가 이미 등장해 확산되고 있으며, 공공건축 부문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건축기획의 의무화되었고, 공공건축 심의가 신설되었으며, 자치단체에서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은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업무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의한 것이다.

서울시는 도서관, 미술관, 체육센터, 복합공공청사 등 시민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0년 2월 24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을 승인받았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시공간개선단은 공공건축사업에 있어 기획 단계의 전문성 부족, 지원체계 부실로 인한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이미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및 설계 공모 등의 제도를 운영 지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도시공간개선단 외에도 방침 및 조례 등을 통해 통합기획 TF팀을 구성 운영하거나, 사업 적정성 검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용역 발주 심의 등을 수행하는 관련 부서들이 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공건축물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적 장치들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여기에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건축기획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는 크게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 관계자 교육, 자료 구축 및 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더하여 ‘합리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발주, 기획, 디자인, 유지,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자문’, ‘설계비 5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의 적정성 심의’ 등을 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도 운영 지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전담했던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서울시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현재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업무
- 자문에 대한 응답 등
 - 공공건축의 발주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공공건축의 디자인 관리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추진 현황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물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 단계인 ‘건축기획’ 분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시, 자치구, 사업소 등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사업’에 대한 사업 필요성 검토, 입지선정 지원,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발주방식·디자인 관리 등을 수행한다.

현재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는 2020년 3월부터 월 2회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법정 검토 기간은 30일이다. 그러나 신규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인 데다, 금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회신할 수 있게 운영 중이다.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총 6회 접수) 접수된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건은 32건이었다. 서울시에서 의뢰한 것이 7건이었으며, 자치구 19건,

그 외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도서관, 한국전력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 6건으로 자치구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기획을 수행한 유형을 살펴보면 담당 부서에서 자체 추진한 경우가 7건, 전문가를 활용한 건이 8건, 용역으로 추진한 경우가 17건이었으며, 이중 용역의 경우에는 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등의 명목으로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축기획의 보안을 위해 총괄건축가 및 MP 등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것은 5건이었으며, 통합기획 TF팀 등 서울시 내 자문기구를 활용하여 검토한 사업은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비의 경우,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은 9건, 2~5억 원은 10건, 5~10억 원은 4건, 10억 원 이상은 9건이 접수되었다. 이중 설계 공모 우선 적용대상이 2.1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발생한 사전검토 건은 약 9건(28%)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과 노유자시설이 각 6건씩 총 12건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문화 및 집회 시설이 5건, 운동 시설이 4건, 공동주택, 교육·연구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각 3건, 기타 시설이 2건 접수되었다. 이중 신축사업이 2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사업이 각 1건씩 접수되었다.

이상의 통계는 도입 초기 3개월(3월~5월) 동안에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더 많은 자료를 지속해서 구축·관리한다면 공공건축물 기획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다.

▼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 현황(2020. 3. ~ 5.)

구분	의뢰 부서			건축기획		
	서울시	자치구	기타	담당 부서	전문가 활용	용역
건수(%)	7(22%)	19(59%)	6(19%)	7(22%)	8(25%)	17(53%)

구분	건축행위				설계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1~2억	2~5억	5~10억	10억 이상
건수(%)	29(91%)	1(3%)	1(3%)	1(3%)	9(28%)	10(31%)	4(13%)	9(28%)

구분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노유자 시설	문화시설	운동시설	공동주택	교육연구 시설	제1종 근린 생활시설	기타
건수(%)	6(19%)	6(19%)	5(16%)	4(13%)	3(9%)	3(9%)	3(9%)	2(6%)

사전검토 : 예산부문

건축기획 단계에서 많이 누락되는 항목은 ‘설계 의도 구현’ 관련 사항이다. 접수된 사전검토 사업계획서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32건 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각종 인증비용’을 누락시킨 사업은 20건, ‘설계 공모비’를 별도 확보하지 않은 사업도 5건이 있었다. 특히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되었음에도 공사비에 미반영된 사업이 대부분(대상 사업 19건 중 15건)이었다. 이러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설계 의도 구현’ 사항을 누락시킨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단, 이 두 가지 사항은 설계 및 공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예산의 경우 건축기획 시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검토 : 계획부문

공공건축지역센터에서는 위와 같이 ‘정량적’으로 설명 가능한 검토 외에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 관련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설명 가능한 검토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것이 쉬운 편이다. 그러나 사업부서가 그간 다양한 검토 결과 끝에 도출한 계획들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단기간(법정 검토 기간 30일)에 정확히 파악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분명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간 합의된 기준이 없는 사항들을 대상으로 한 검토의견에 대해 사업부서가 이견을 제기하는 등 때로는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건축기획의 사업계획 부문에서 다수의 사업에 공통으로 자주 제시되는 보완 요청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차량 및 보행 동선 체계가 면밀하게 고려되지 않아 인접 지역과의 관계가 모호한 사항’, ‘불합리한 주 출입구의 위치 선정 사항’, ‘효과

적인 전시 구현을 위한 건축 및 전시계획 통합 추진 필요’, ‘미결정된 전시, 운영 콘텐츠에 대한 보완’, ‘시설 운영계획의 구체화 및 운영 주체 결정 필요’, ‘외부공간과의 연계 및 외부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누락’, ‘공용면적(공간)의 추가 확보’, ‘운영기관을 포함하는 자문위원회,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 및 총괄 계획가 등의 운영’ 등이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가 어려운 경우는 또 있다. 119 안전센터, 도서관, 미술관 등은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공공건축물이다. 그러나 가족센터, 체험관, 교육센터 등은 세부시설에 대한 계획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실별 요구조건(규모, 위치, 설비, 부속실 등) 등을 제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부서에서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 부분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시설별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지역별로 조성되는 다수의 공통된 시설이 계획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에 부합하는 건축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건축기획 시 마스터플랜 검토의 필요성

검토 요청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해당 공공건축물 자체 사항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각도의 검토 및 건축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과 외부공간과의 관계, 향후 건축물의 활용 및 운영 사항, 인접 지역 공공건축물과의 통합·연계 추진 및 효율적 사업 추진 관리 방안 등 해당 공공건축물과 주변 도시·공공건축물과의 관계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획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특히 이러한 사항들은 서로 다른 부서(기관)에서 추진되는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단계별 추진에 따라 사업 추진 시점도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부서는 초기 건축기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조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충분히 논의·조정된 뒤에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를 생략한 채 사업계획 및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실제로 검토된 사업들의 사례를 봐도, 인접 지역의 공공건축물(시설)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진행해야 함에도, 개별 부서(기관)가 각각 추진하는 사안인 관계로 서로 연계되지 않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초기 계획 방향 설정에 있어 미진한 부분들이 일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주변 지역이나 시설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동일 시설 내의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2020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따른 복합용도 건축물이 이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운영방식을 시설계획에 반영해야 하나, 별개의 사업부서 및 관리 주체, 미비한 운영계획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건축물의 경우, 해당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사업 부지나 운영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활용계획 및 단계별 추진방안 등의 통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부서, 운영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항들은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 또한 사업부서, 사업 추진 시기, 예산 등이 제각기 다른 사항이어서 반영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바람직한 공간 구성을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분명히 제시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건축기획을 추진할 때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측면에서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가능한 한 빨리 의뢰하고, 이에 대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의견을 받아 이를 반영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건축기획은 어떻게?

이상의 사항들은 대부분 초기 건축기획이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건축기획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향후 공공건축물의 질이 향상되어 누구나 질 높은 공공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건축기획은 어떻게 하는 걸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기획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 공공기관은 건축물 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절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 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 디자인 관리 방안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그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주변 유사시설·유흥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 그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그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기본구상, 공사 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법과 시행령 안에 건축기획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실상 건축기획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로 문의해오는 사례가 많다. 많은 사업 담당자들이 “건축기획은 언제 해야 되나요?”, “건축기획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누가 수행하고, 업무 대가는 얼마나 되나요?”, “기본구상 용역을 했는데, 건축기획을 또 해야 하나요?” 등의 질의를 자주 하고 있다.

또한 “설계를 통해 건축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해도 되나요?”와 같은 질의도 빈번하다. 이는 실제 건축기획 업무를 추진하는 데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며, 그 모호함은 건축기획에 대한 명확한 내용과 범위, 업무 대가 등이 정확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다.

먼저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건축기획과 가장 유사한 개념은 「건축사법」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의 ‘기획업무’다.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건축기획을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본구상, 공사 수행방식 등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건축사법의 기획업무보다는 그 범위가 다소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용어 사용도 문제가 있다. 건설기술사 업무는 ‘기본구상’, ‘기본계획’, ‘공사 수행방식 결정’,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분되지만, 공공건축물의 설계업무는 ‘기획업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된다.

그간 많은 분들이 「건설기술진흥법」의 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등의 용어에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건축기획에 관해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건축기획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와 용어의 혼재로 인한 혼란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건축기획이 법정 의무사항으로 시행되는 만큼, 건축설계 업무에 대한 명확한 범위의 지정과 용어의 통일,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검토 의뢰는 언제?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을 수행하고 그 내용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공공건축 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그 검토를 완료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공공건축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의뢰 시점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인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전검토를 통해 해당 건축물 및 주변 공공시설들의 종합적인 계획의 방향은 물론이고, 설계비, 공사비 등 소요예산의 적정성, 시설계획의 적정성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검토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용역 발주 전에 의뢰하게 된다면, 이미 발주 시기를 정해놓은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발주 전에 추진하는 사업계획 검토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전검토는 예산편성 전, 건축기획이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예산편성 전에 사전검토를 의뢰하도록 방침을 수립하여 안내하고 있다.

사실 3월 이후 검토된 현재 사업계획서들의 경우 법 개정에 따른 신규 행정절차인 관계로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설계용역 발주를 앞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체계적 건축기획을 통한 도시품격의 향상 기대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소수의 인력으로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 외에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자문, 운영기준 마련, 관계자 교육,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책 시행 초기 단계인 데다 새롭게 추가된 행정절차여서 번거로울 수 있음에도,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공공건축물 부문의 건축기획 강화라는 중요한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주고 있다. 또한 빠듯한 사업 일정으로 인해 신규 절차가 부담스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 글을 빌어 그간 많은 도움을 주고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과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울시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자체 최초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 만큼 선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선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제 중요한 첫발을 댄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과 이와 관련된 여러 사항이 앞으로 더욱 잘 정비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수준 높은 공공건축물들을 통해 우리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의 웹 기반 공공건축지원 업무 시스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_강경연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는 지난 5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 공공건축지원 업무 수행’ 승인을 받아, 충청남도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 응답,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홈페이지(www.cpdcr.re.kr)를 통해 공공사업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10년 이상 운영해 왔고, 여러 차례의 개선을 거쳐 ‘웹 기반 업무 시스템’을 고도화해 왔다. 이러한 기존 시스템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토대로 공공건축지원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시스템’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그림 1] 웹 기반 공공건축지원 업무 시스템의 구성

시스템 구성

‘공공건축지원 업무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사전검토, 자문 응답,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3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안내 페이지, 각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 시스템, 충남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 유형 별 마이페이지 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 내 접근 가능 범위와 생성, 조회, 수정, 삭제 등의 권한 수준에 따라 신청자, 자문위원, 관리자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사용자에게는 권한 수준에 부합하는 마이페이지가 제공된다.

신청자와 자문위원은 마이페이지 내에서 자신이 신청했거나 검토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이페이지 초기화면은 디자인 컨설팅, 사전검토, 자문 응답의 세 가지 업무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업무의 진행 상황이나 현재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그림 2]와 같이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 있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신청했거나 자문의견을 제시했던 모든 사업의 내용과 결과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확인하거나 참고할 수도 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사전검토 신청 시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센터가 개발한 ‘공공건축지원 업무 시스템’은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웹상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사업계획서 등의 첨부 자료는 신청서 입력 창에서 업로드하도록 하였다. 또한



디자인 컨설팅

공공사업
분야별 자문

(a) 이력이 없는 경우



사전검토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b) 완료된 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 응답

공공건축 및
사업계획서 관련 자문

(c) 진행 사항이 있는 경우

▲ [그림 2] 신청자 및 자문위원의 마이페이지 초기화면

신청서 서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공공건축 사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업예산, 규모,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입력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시스템을 통해 사전검토 신청업무를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신청 서류의 작성, 수정, 보완이 수월해진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최종 저장상태가 유지된 채 로그아웃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을 멈춘 상태에서 내용을 검토하거나 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업로드한 첨부파일을 새로운 파일로 쉽게 교체할 수도 있다.

이미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보완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원칙상 접수 완료 후에는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 수정은 불가능하고 조회나 인쇄만 가능하다. 또한 접수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자료 요청, 작성, 제출 기간이 더해져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경우 사전검토 접수 기준일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로 정해져 있지만,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자는 접수 기준일 전에 신청된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과 협의가 된 경우에는 관리자 권한으로 신청을 취소하여 신청서 입력단계로 되돌릴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신청자는 접수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신청 서류의 모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접수 기준일 전에 신청서 보완을 완료하여 사전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현재까지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 접수된 모든 사전검토 사업은 접수 기준일 전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신청 서류를 보완한 뒤에 접수 일자를 지정받았다.

한편 사전검토 신청서를 문서 파일로 제출하지 않고 각 필드에 값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각각의 값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개발된 시스템에서는 신청 시 입력한 값 중 [표 1]의 파란 글씨로 표시된 모든 항목이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저장되며, 이를 다양한 목적의 통계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값을 입력하는 필드에 속성을 부여하여, 입력되는 값이 숫자인지 문자인지, 백만 원 단위인지, % 단위인지 등 각 값의 형식이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빈 필드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이 되지 않게 하거나, 총사업비가 공사비, 설계비, 부대비의 합보다 작을 때에는 저장이 되지 않게 할 수도 있어 각 필드의 속성이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값의 입력을 막을 수 있다. 이는 사전검토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실수나 오류를 줄이는 동시에, 보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한다. 그 외에도 신청서 작성을 돕고 입력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입력값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㉞ 단추를 추가하여 풍선 도움말을 통해 입력값의 정의와 내용을 확인하고 필드에 적합한 값을 입력할 수 있게 하였다.

▼ [표 1] 사전검토 신청 시 입력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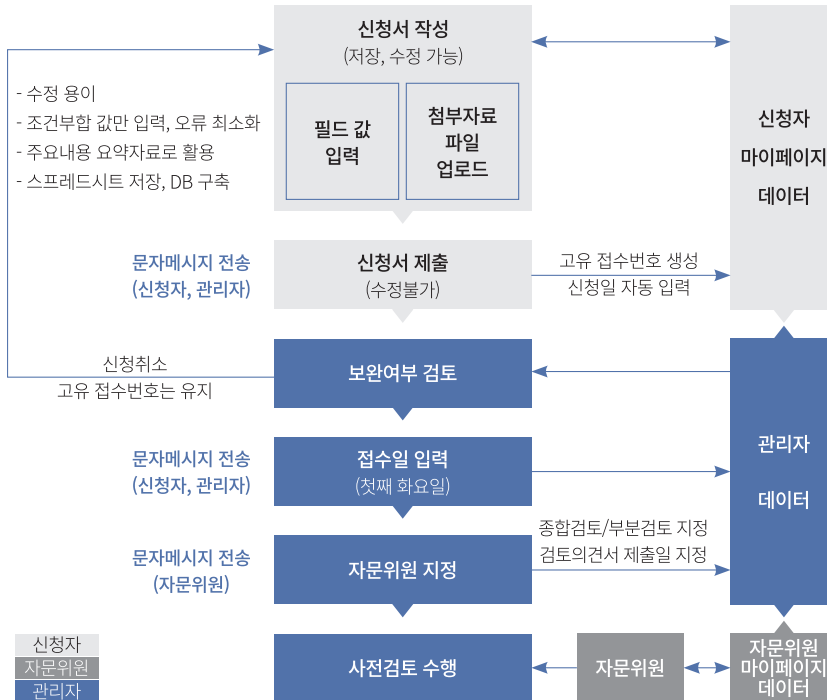
구분		입력값 및 내용		
공공 디자인 센터 웹 기반 신청 시스템	신청인 개요	- 소속기관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주소
	시행 규칙	- 사업명 - 건축 구분 - 부지 위치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총사업비 - 용도
	서식 내용	- 사업의 내용, 자원조달 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발주방식 - 디자인 관리방안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그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추가 입력 내용	예산 - 공사비(부지조성 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단위면적 당 공사비, 전시 공사비) - 설계비(설계 공모비, 설계대가 요율, 설계 용역비) - 부대비(감리비, 설계의도 구현 관련 비용, 인증 관련 비용, 평가/조사 관련 비용, 기타 부대비용)		
		규모 - 부지면적 - 전체 주차장 면적	- 전체 주차대수 - 순면적	- 공용 면적비
		일정	- 공모기간 - 설계기간	- 공사기간

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시스템’은 시행규칙 신청서 서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예산, 규모, 일정 계획의 세부 내용도 추가로 입력하게 되어 있다. 이는 사업계획서의 여러 페이지에 분산된 중요 정보들을 하나의 표 안에 요약하여 입력하게 함으로써, 신청기관 담당자에게 사업계획서 전반을 한 번 더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작성된 신청서는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관리자나 자문위원에게도 사업계획 주요 정보가 요약된 하나의 자료가 된다. 실제로 이 자료는 현재까지 접수된 모든 사전검토 사업에 대한 신청 취소 및 보완 여부를 검토하는 데에 요긴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웹상에서 각 값을 입력한 신청서가 시행규칙 서식과 동일하게 인쇄되도록 하는 것도 시스템 개발과정의 이슈 중 하나였다. 특히 본 시스템은 시행규칙 서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도 추가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쇄 범위 및 여백, 신청서 입력값과 인쇄물 출력값의 형식 및 위치, 인쇄 항목 제외 옵션 등을 조정하여,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공공디자인센터 서식에 따른 신청서’ 중에서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

사전검토는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고유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신청 일자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관리자는 각 사업의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반려 여부를 결정하고, 선별된 사업을 접수 처리한다. 접수는 매월 접수 기준일에 관리자가 신청 사업별로 접수 일자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접수 일자가 생성되면 동시에 자문위원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활성화되며, 그때부터 사전검토 일정이 시작된다.



▲ [그림 3] 웹 기반 공공건축지원 업무 시스템에서의 사전검토 신청 절차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한 역량 있는 건축사, 그리고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 운영규정」에 명시된 전문가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리자는 접수 완료된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서버에 등록된 자문위원 목록을 이용하여 각 사업의 검토위원을 지정한 뒤에, [그림 4]와 같이 각 자문위원의 ‘검토 분야’와 ‘검토 의견서 제출 일자’를 설정한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획업무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 진행과 기획업무의 절차를 고려하여 [그림 4]와 같이 8개 분야로 구성하였다. 자문위원의 사전검토는 검토범위를 기준으로 모든 8개 분야에 대한 ‘종합 검토’, 3~6번 분야 중 3개 이상 분야에 대한 ‘부분 검토’로 구분하여 수행된다.

사전검토 수행 중에 추가적인 검토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시스템을 통해 추가자료의 필요성, 추가자료 목록 등을 입력하고 제출기한을 설정하여 신청자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추가자료 요청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고, 각 사업별로 추가자료 요청 이력과 모든 제출자료를 하나의 페이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전검토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소속	*** / *****
검토수준	<input type="radio"/> 종합검토 <input checked="" type="radio"/> 부분검토
검토분야	<input type="checkbox"/> 1. 사업개요 <input type="checkbox"/> 2. 사업부지 현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시설 규모 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건축물 내외부 공간구성 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예산 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6. 디자인 관리방안 <input type="checkbox"/> 7.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input type="checkbox"/> 8. 시설운영계획

▲ [그림 4] 사전검토 자문위원 설정 화면

사전검토 진행 상황 확인 및 일정 관리

[그림 5]는 사전검토 완료 시 나타나는 ‘마이페이지 세부 조회 화면’이다. 사전검토 신청, 추가 자료 제출, 사전검토 결과 등 각 단계의 단추들은 사전검토 진행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신청자나 자문위원은 사전검토 각 단계별 단추의 활성화 여부를 확인해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추가로 필요한 조치나 처리결과는 각 단추를 클릭해 해당 항목으로 들어감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관리자는 다양한 사전검토 업무 수행 절차에 따른 일정도 관리해야 한다. 동시에 진행되는 사전검토 사업의 수가 많거나, 사전검토 진행속도나 소요기간이 사업별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일정 관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개발된 시스템은 사전검토 신청 및 접수, 추가자료 요청 및 제출, 자문위원 지정 및 자문 의견서 제출, 현장방문, 기관 협의, 사전검토 완료 등 각 단계의 일정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관련 신청자, 자문위원,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사전검토 일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추가자료나 자문 의견이 제출기한 2일 전까지 업로드되지 않은 경우, 재공지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사업명	신청/접수	추가자료 제출	사전검토 결과
**** **사업	접수완료	제출완료	의견서 보기 사전검토 의견 활용계획 제출
사업명	신청서 조회	추가자료 확인	사전검토 결과
**** **사업	신청서 보기	추가자료 확인하기	세부항목별 검토의견 제출

▲ [그림 5] 사전검토 완료 시 신청자(위)와 자문위원(아래)의 마이페이지 화면

사전검토의견서 작성 및 교부

관리자가 자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하는 사전 검토 종합의견서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웹상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사업개요 및 진행 경위 데이터는 신청 시의 입력값을 자동으로 불러들인다.

설계비			추가요율 (인중, 리모델링 등)	감리비	부대비	
설계 공모비	설계 용역비	설계 대가요율			설계의도 구현 관련비용	인중관련 비용
**백만원	**백만원	제3종(복잡) / 중급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제3종(복잡)/상급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선택 ○ ● ● ● ●			
부지면적	주차대수	부지면적	시설 순면적			
**㎡	**대	**㎡	**㎡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input type="text" value="△"/>			

▲ [그림 6] 사전검토의견서 중 검토결과표 입력 화면

종합의견서에는 [그림 6]과 같이 사업 예산, 규모, 일정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한 표도 포함되는데, 이 표에도 역시 신청 시 입력값들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관리자는 각 항목 값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하단의 풀다운 메뉴(pull-down menu)를 이용하여 적정함(○), 감소 필요(▽), 증가 필요(△), 재검토 필요(◇), 해당사항 없음(-)의 5가지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이렇게 작성된 검토결과표는 관리자나 신청자가 검토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 기호’들은 다른 형태의 명명 척도(nominal scale)로 변환되어 해당 사업 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되므로, 사업 유형별 건축기회 특성이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이 밖에 종합의견서에는 접수 후 총 자료 보관 횟수, 소요일수 등도 추가로 입력하여 자료화한다.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세부항목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업로드하고 사전검토 업무 완료를 확정하면, 처리 일자가 신청서에 자동 기입되며 신청서 접수부터 사전검토 완료까지의 소요기간이 계산되어 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된다. 신청자는 사전검토 의견서를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의견 활용 계획 제출 단추가 활성화된다.

다양한 서식 관리 시스템

공공건축지원 업무에 있어 주기적으로 관리, 갱신해야 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고려도 시스템 개발 이슈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페이지에는 충청남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추진현황, 충청남도 공공건축 통계분석 결과, 공공건축 사업단계별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정보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목적과 성격에 따라 게시 형태가 다르며, 갱신 및 관리 주기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사전검토 추진현황의 경우는 1년 단위로 분석하며 그 결과를 표나 그래프와 같은 형태로 게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공공건축 관련 규정 및 지침은 제정, 개정, 폐기 등의 상황을 일정한 주기로 모니터링하면서 최근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시스템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거나 관련 웹페이지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련 서식 등 시스템 일부 페이지는 관리자가 직접 생성, 편집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였다. 페이지의 내용은 개조식으로 3개의 수준까지 작성,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하위 수준에서는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 웹사이트 링크, 단순 텍스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형태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건축 자문의 응답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의 공공기관 중에는 공공건축 관련 부서나 전문가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 존재한다. 또한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통합적인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건축 사업기획 수립과 사업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발주, 건축기획, 일정 및 사업관리, 인증 등에 대한 자문 응답 업무를 시스템에 포함했다.

현재까지의 건축기획과 사전검토에 관련된 문의는 유선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작성요령과 사전검토 신청 서류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업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문 의견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자문 응답 시스템을 이용하면 유선상으로 응답을 즉시 제공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별도의 외부 자문위원을 활용해야 하는 특수 분야 자문 사안 등에 대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다 체계적인 응답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자문내용이 시스템에 저장되므로 사업 담당자가 추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참고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마이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는 자문 응답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자문 주제와 내용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향후 공공건축 자문 응답 업무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뒤,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Q&A 형태로 구성하여 시스템에 탑재할 계획이다.

웹 기반 업무 시스템 활용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웹 기반 업무 시스템은 컴퓨터의 신속성, 정확성, 대량성, 자동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내용과 절차로 이루어진 공공건축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특히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나 다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비해 전담인력 수가 적고, 다수의 역량 있는 건축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소수 관리자가 다수의 사업과 자문위원, 다양한 절차와 단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웹 기반 업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건축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6월에는 접수된 사전검토 사업이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무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체감한 효율성은 본 시스템 개발 전후가 극명히 비교되었다. 기존의 업무 과정과 비교했을 때, 개발된 웹 기반 업무 시스템은 사업 신청, 서류검토, 접수, 자문위원 지정, 일정 조정 등 각종 업무 수행방식과 절차를 확연히 개선했으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틀 안에서 다수 사업의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현재까지 이와 같은 웹 기반 공공건축지원 업무 시스템이 개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지역자치단체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업무 시스템은 공공건축지원 업무의 효율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구축이 공공건축지원 업무 내용의 수준과 질의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충남공공디자인센터는 단순히 시스템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실무자, 공공건축가, 전문가, 공공건축지원 담당자 등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하고 정보소통 방식과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 공공건축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LEVEL UP

당진시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성과와 과제



당진시 총괄건축가 **차주영** 박사

당진시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배경

당진시는 2018년 11월과 201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총괄건축가 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되었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우리나라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도시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당진시는 서해안에 접한 지리적 이점과 2000년 서해대교 건립 이후 향상된 접근성을 바탕으로 급속한 산업 발달과 더불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교통망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공급되고, 도시 및 농어촌 개발사업, 공공청사 조성 등 공공사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사업의 활발한 추진은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건축문화를 진흥하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을 파괴하고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당진시는 수많은 공공사업을 해오면서 양적 확충과 함께 공간환경의 품질을 높이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2016년 당진시는 건축과 내에 공공건축팀을 신설했다. 또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영주시의 ‘도시건축관리단’과 서울시의 ‘도시공간개선팀’을 벤치마킹하여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의 활용을 검토하고 도입하게 되었다.



▲ 당진시의 대표적 중심지¹⁾



▲ 당진시의 교통체계²⁾

당진시 공간환경 관련 이슈와 추진 경위

당진시는 충청남도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서해안에 면해 완만한 구릉과 평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당진시에서는 역사적으로 간척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농업과 해로 및 하천을 이용한 물류 등이 발달했다. 서해대교 건립 이후에는 황해와 아산만을 연결하는 긴 해안선을 따라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쌀 생산 중심의 농업과 철강 등의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당진시는 산업 및 행정적 특성에 따라 지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먼저 역사적으로 농업 중심지였던 합덕읍과 면천면, 서해안을 따라 발달한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인 송악면과 석문면, 1970년대 이후 당진군과 당진시의 행정적 중심지인 당진동 등 각각의 공간적 기능과 삶터가 구분되어 있는 형상이다. 이는 당진시에 다양한 기능과 잠재력이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시설과 공공사업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2019년 초 당진시의 건축 및 공간 관련 정책사업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총 80여 건의 사업 중, 23건의 사업이 당진동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당진시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책 및 계획 수립 관련 사업이 7건, 정비 및 개발 관련 사업이 20건, 공공공간 및 공공건축 사업이 50여 건, 기타 경관 등 관련 사업이 7건을 차지하고 있다.

1) 출처: 필자 작성

2) 출처: 필자 작성

현재 당진시는 급속한 발전 속에서 분야별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성장을 지속해서 이끌어나가는 동시에, 급변하는 국내 외 정세 속에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당진시는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지속 가능한 당진'을 모토로 하여, 각 분야의 실행계획을 연계·통합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와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진시가 해결해야 할, 특히 공간환경과 관련한 몇 가지 현안이 있다. 첫째, 당진시 도시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등 공간 관련 계획 간 연계성 확보, 둘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촌 뉴딜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장소 중심 전략 강화와 공간환경에 대한 질적 제고, 셋째, 공공공간, 공공건축의 품질 제고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이다.

당진시는 이와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국토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 지원하였다. 그 결과 11월에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괄건축가를 위촉하게 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2019년 1월에는 공공건축가 5인과 분야별 전문가 4인을 위촉해 총 10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2019년 5월에 「국토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 재선정되어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올해 초에는 공공건축가 3인과 분야별 전문가 1인을 추가로 위촉하게 되었다.

2018년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이후 노력과 변화

2018년 말 총괄건축가 위촉 이후 처음으로 착수한 일은 시의 현안을 파악하는 일이었다. 이를 토대로 민간전문가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조직체계를 마련했다. 민간전문가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공사업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장소 단위 공간

미래상/ 공간전략 정립	정책자문	-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전략 검토, 지역현황에 맞는 방향으로 유도 - 도시디자인 관련 기본계획 및 사업에 대한 자문	- 자문 - 특별 TFT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 공간전략 실행을 위한 장소단위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도시디자인사업 발굴, 중앙정부 공모사업 기획 및 사업계획서 수립 지원	- 대상지 발굴 - 계획수립 기획 및 지원
사업 방향설정/ 연계조정	총괄조정 및 자문	- 중점 도시 및 건축사업의 총괄조정 - 사업별 기획 및 디자인방향에 대한 자문 및 통합디자인 형성 유도	- 회의참석, 부서간 의견조정 - 자문, 분야별 전문가풀 운영
	공공건축 관리체계 구축	-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 관리 강화 지원 - 기획력 강화 및 설계공모 추진체계 마련 - 공공건축 자산관리체계 구축 지원	- 선도사업 추진 - 공공건축가 운영
디자인 역량 강화	교육	- 관계 공무원 대상 도시디자인 교육 - 전문가 포럼 기획 및 지원	- 공무원 교육

▲ 2018년 당진시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실행계획 목표 및 실행전략



▲ 당진동 공간환경전략계획 마스터플랜(안)³⁾

전략 정립, 부서별 사업 간 연계조정, 디자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정책자문,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중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공공건축 관리체계 구축, 교육 등을 실행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과 조율을 위해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하였으며, 공공건축가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건축가로 구성된 ‘공공건축가’는 당진시의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그리고 도시·조경·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는 보다 큰 단위의 도시 사업이나 농어촌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 초 당진시의 건축 및 도시 관련 중점 정책사업은 약 80여 건이었다. 그리고 2019년 한 해 동안 약 65건의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진행했고, 또 그만큼 성과가 높았던 내용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총괄조정 및 자문’, ‘공공건축 관리체계 구축’이다.

3) 출처: 당진시(2020), “당진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 「어촌 뉴딜 300 선도사업」 난지섬 마스터플랜 종합구상도(안)⁴⁾

‘마스터플랜 수립’은 공간에 대한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획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진시가 수행한 대표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사례로 국토부의 국비 지원을 통해 수립한 ‘당진동 일대 공간환경전략계획’을 들 수 있다. 이는 당진시의 행정·교육·주거 중심지역인 당진동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의 수립을 위해 먼저 도시 기본계획 상의 도심 전략을 바탕으로 20년 후 당진동 지역의 공간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상을 그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 정미면 공공시설 배치계획⁵⁾



사업을 도출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난지섬 어촌 뉴딜 300 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례가 있다. 일반적인 국비 지원사업은 공모계획에 따른 단위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난지섬 어촌 뉴딜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중점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마스터플랜에서는 난지섬의 매력과 어떤 관광객이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주민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소풍 가는 난지섬’이라는 미래상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어촌 뉴딜사업」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도출하였으며, 국비를 통한 마중물 사업을 시작으로 난지섬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한편 면 단위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사례도 있다. 바로 ‘정미면 공공시설 배치계획’ 사례다. 작은 면 단위에서 추진되는 공공사업들은 그 시기에 차이가 있어 대체로 장소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정미면은 당진시 서부권의 중심지 중 하나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외에도 당진시 북부권 사회복지관, 정미면 청사, 주민지원시설, 보건소 등을 조성하는 다양한 공공사업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 마스터플랜 수립의 핵심은 개별사업들을 추진할 때마다 생기곤 하는 입지선정 논란을 해결하고, 유사 기능의 집적화를 이루어 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먼저 당진시 담당 부서와 정미면사무소, 공공건축가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이 협의를 토대로 공공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북부권 사회복지관’과 ‘노인 공동 홈’을 하나의 부지에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정미면 청사와 주민지원시설, 보건소, 어린이집을 복합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총괄조정 및 자문’은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 등 단일 사업의 품질 및 품격 제고를 목표로 한다.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총괄조정 및 자문’ 업무는 약 50건으로, 민간전문가 업무 중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총괄조정 효과가 가장 높은 사례로 당진 시내에 위치한 ‘구군청사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구군청사 조성사업’은 쇠퇴하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군청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구군청사로 사용되던 건축물에는 새로운 기능이 부여되고 또한 광장도 조성하게 된다. 이 사업에는 도시재생과, 지속가능발전담당관, 경제에너지과, 건축과 등 여러 부서가 관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목적은 다른 국비 지원사업과 진행 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해 사업들이 상호 연계 추진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향후 당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사업의 방향과 일정을 조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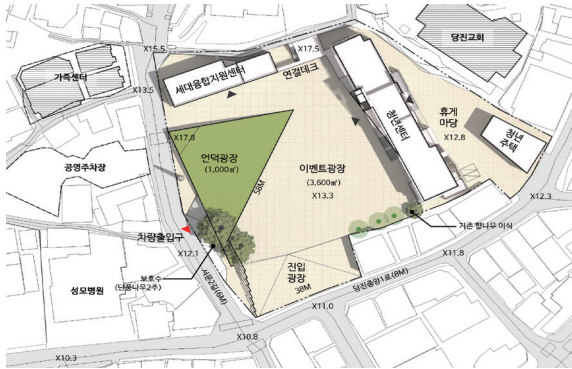
4) 출처: 당진시(2020), “난지도항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서

5) 출처: 당진시 건축과 작성(2019)

한편 당진시의 중요 거점사업인 송악읍 북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회관, 시민봉사 지원센터, 장애인회관, 당진 3동 청사, 정미면 북부권 사회복지관, 구군청사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담당 부서와 공공건축가가 함께 계획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공공건축팀에서는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설계 공모 등도 추진하였다. 나아가 사업별로 공공건축가를 매칭하여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에서도 초기 기획내용과 설계 공모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 전 단계를 관리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단시간에 우수 공공건축물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공공건축가가 직접 설계하는 ‘소규모 공공건축 시범사업’도 추진하였다. 총 5개 시범사업 중 시의회 열린 도서관과 삼선산 수목원 숲 속 도서관 등은 준공 완료되었으며, 시민들이 향유할 있도록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 외에도 공공사업 추진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공건축 조성체계 개선방안’, ‘디자인 관리 주체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일도 수행하였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당진시 자산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및 ‘공공디자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 구군청사 마스터플랜⁶⁾



▲ 구군청사 광장 설계공모 당선작⁷⁾



▲ 삼선산수목원 - 1⁸⁾



▲ 삼선산수목원 - 2⁹⁾



▲ 의회도서관 - 1¹⁰⁾



▲ 의회도서관 - 2¹¹⁾

등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그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건축물 사업 추진 시 예산의 증가나 설계변경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입지선정, 디자인 방향 등을 초기에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기획업무를 강화하였다. 현재 이 내용들을 각 사업부서에서 도입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 중이며, 매뉴얼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마을마다 지원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진행 중이다.

당진시 민간전문가 제도 성과와 반성

돌아보면 2018년 말 총괄건축가 위촉을 시작으로 공공건축가와 분야별 전문가, 당진시 건축과 공공건축팀은 지난 1년 반 동안 참으로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해왔다.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이나 공공공간 등의 조성에 있어 무엇보다도 주변 맥락, 시 재정, 사회변화 등 도시의 전반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설계자, 시공자의 역량이 우수해야 하며, 무엇보다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 간의 수평적인 의사결정 체계, 긴밀한 협업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장소 단위 마스터플랜 수립, 단위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등을 수행하였으며, 우수한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 공모와 소규모 공공건축 시범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무엇보다도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있어 설계자, 시공자, 행정 간에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한뜻으로 노력하였다.

6) 출처: 당진시(2019), “당진시 구)군청사 조성 기획설계” 보고서

7) 출처: 제이와이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8) 출처: 필자 촬영

9) 출처: 필자 촬영

10) 출처: 필자 촬영

11) 출처: 필자 촬영

공공건축가들은 매월 공공건축가 정례회의를 비롯한 수많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당진시의 중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분야별 전문가들은 「어촌 뉴딜사업」 등 장소 단위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때로는 MP로서, 때로는 계획가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장소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외에도 당진시에 맞는 공공건축 관리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공공사업 기획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PDAT(Participation Design Adjustment Tool) 방식을 실험적으로 도입해 보기도 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외부기관의 도움으로 디자인 관리체계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했다. 공공건축물 전체에 대한 중장기 관리 전략을 시범적으로 수립해 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1년이 지난 지금 ‘좋은 공간환경’이라는 결과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보다 우수한 공간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행정 의지와 노력이었다.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과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 시장님,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이루어낸 건축과장님의 실행력,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민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실행에 옮긴 공공건축팀 담당자들의 꾸준한 노력 등이 없었다면 일 년간 이렇게 수많은 시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공공의 노력에 힘입어 민간전문가들도 한뜻을 모아 노력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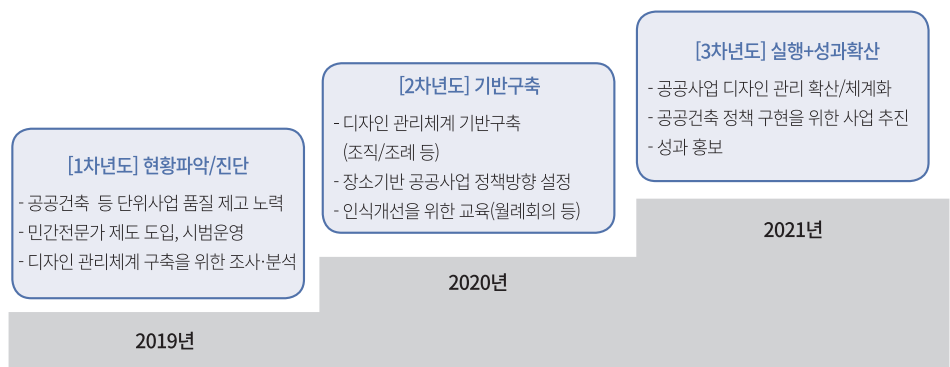
그러나 노력이 컸던 만큼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진시에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해 나가면서 얻은 가장 큰 즐거움과 성과는 선진적인 의사결정과 협업체계다. 특히 공공건축 사업의 참여 주체인 설계자와 공무원, 민간전문가 사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고, 장소 단위의 사업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간에 의견 조율 및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들이 사업의 효율성과 결과물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핵심 요소들이다.

장소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차근차근 실행으로 옮기는 것, 사업 관계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긴밀한 협업, 그리고 이들의 역량 강화 모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협업을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논의의 시간이 길어지기 마련이다. 되도록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파악해 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이를 토대로 민주적으로 결정하려고 노력하지만 과중한 업무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논의를 위한 논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협업체계가 아직까지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어촌 뉴딜 300 선도사업」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장소와 디자인에 기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농어촌 사업」 등에서의 협업이 아직 미흡한 이유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디자인 중심의 의사결정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민간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먼저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가’라는 단어 앞에 ‘총괄’ 또는 ‘공공’이라는 접두어가 붙어,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당진시의 모든 공공건축물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조정’과 ‘자문’이라는 역할이 프로젝트의 특성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명문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닌다. 시간이 지나면서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설계자와는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는 높아졌지만,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자문”한다는 역할의 의미와 범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에게조차도 모호한 지점이 있다. 처음 당진시 총괄건축가로 위촉되었을 때, 이미 3년 동안 부여에 총괄계획가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시던 강인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긴 호흡으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된 것 같다.

현재 당진시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목표로 하는 「건축기본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건축기본조례」는 당진시가 지난 1년여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전문가의 업무와 역할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사업에 대한 조정과 자문의 역할을 폭넓게 수행하고, ‘도시건축 추진단’을 두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본격적인 2년 차를 맞은 2020년도에는 1차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활용을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먼저 공공건축가와 분야별 전문가 풀을 확대하였다. 나아가 당진시의 현안인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에 발맞추어 공간환경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한다. 이를 발판으로 3차년도에는 공간환경사업에 대한 디자인 관리를 확산하고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당진시 민간전문가 제도 3개년 계획

REVIEW

032 탈식민주의 문화 “플라우 피낭(Pulau Pinang)”
: 비의도적 디자인과 일상 순응적 도시

이종세 교수

044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의 스마트 그린오피스

김준연 교수

탈식민주의 문화 “플라우 피낭(Pulau Pinang)” : 비의도적 디자인과 일상 순응적 도시



건양대학교 의료공간디자인학과_이종세 교수

시간 순응적 도시

말레이시아 제2의 도시이면서 동양의 진주로 불리는 플라우 피낭(Pulau Pinang / 영어식 발음: 페낭)에는 인구 16만여 명이 거주하는 조지타운(George Town)이 있다. 2008년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UNESCO Historic Site)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인 건축물과 문화의 명소이기도 하다. 서말레이 반도의 조용한 소왕국인 이 섬은 지역적으로 동·서양 교역의 중심지로서,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강대국이 서로 점령하려 초접전을 벌일 정도로 중요한 무역 항구도시의 역할을 했다. 19세기 초부터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국 식민지 시대를 거치게 된다.

▼ 남중국 양식과 혼합된 페라나칸 주택¹⁾





▲ 피낭에서 가장 오래된 유럽식 건축물 ‘St. George’s Church’²⁾

그러나 피낭의 거주자는 백인보다 19세기 후반 남중국 본토로부터 이주한 화교 중심의 페라나칸(Peranakan)³⁾이 훨씬 많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그들은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으며, 지금은 피낭 대부분의 경제적 권력을 갖고 있다. 유럽의 성공회 교회, 불교, 힌두교 사원, 이슬람의 모스크가 함께 공존하듯이, 피낭은 인도네시아인, 인디언, 리투아니아인, 아랍인을 포함한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함께하는 동서양의 문화 공존 도시다. 이는 피낭이 다양한 시대적 역사성을 간직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한 예로 피낭의 중심지인 조지타운 거리에 있는

1) 필자 촬영

2) 필자 촬영

3)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23p1963a>, 다음 백과사전 요약, 페라나칸: 대부분 중국 남부 출신의 이주자들로 원주민 여자들과 결혼하고 자리를 잡았으며, 19세기 중엽에는 안정된 중국계 페라나칸 공동체를 형성했다. 페라나칸들은 어느 정도 토착 생활방식을 따랐으며 일반적으로 중국어보다 원주민어를 사용했다.

영국이 남기고 간 대리석 마감의 관공서, 박물관 건축, 남중국 양식의 수 상가옥, 집합주택 등은 헤리티지(Heritage)로 지정되어있다. 또한 인디언 거리와 아르메니안 거리는 19세기에 무슬림 무역상이 옮겨와 정착했던 곳으로, 다채로운 문양과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 물론 현재에도 중국인 성씨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상가들은 중국계 페라나칸에게 세를 주며 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식민지 시대의 지배문화라는 프레임 속에서 다양한 이주민들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며 통합되어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비록 전문가에 의해 디자인된 것은 아닐지라도, 기나긴 세월 동안 그들만의 삶 속에 새로운 질서로 정착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미적 모습으로 박제된 ‘페라나칸 스타일’의 박물관 거리가 생성된 것이다.

삶의 변화와 도시의 가치

20세기가 지나면서 세계의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피낭 또한 세계화, 도시의 재개발, 마케팅 전략 등의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그러나 이곳의 젊은 건축가나 예술인들은 그러한 변화보다는 100년의 전통을 간직하려 노력해왔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다원주의 양식은 세계적으로 예술의 관심 대상이다. 그리고 이는 아시아권 국가들이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시의 정체성이란 각각의 공공재에 가치와 철학을 담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도시들이 지닌 공통적인 고민일 것이다. 물론 전통을 지키는 것만으로 도시가 공공재적 가치를 가질 수는 없다. 공공재로서의 지역성은 인간과 환경이 공존한다는 장소적 특성을 가지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오랜 기간 사회를 이루면서 지역에 정착시켜온 관습이나 공유·습득된 행동, 생활양식 혹은 그곳의 구성원들에 의한 고유문화로서 독특하게 형성되며, 다양성, 영속성, 통합성을 지니게 된다.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현대인들은 더욱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속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추구한다. 문화가 발전의 중심이 되는 시대이며, 여가, 관광, 문화적 욕구 등의 증가는 삶의 필수조건으로 인지된다. 이러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역 환경 개발과 장소적 차별에 대한 필요성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 발전 전략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소 마케팅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의 원천인 지역성은 지역 활성화 전략의 핵심수단이며, 지역 이미지는 정체성을 만드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장소적 가치를 부여한다.



▲ 어부가 그물망을 손질하던 곳으로서의 장소적 이미지, Ernest Zacharevic 벽화작품⁴⁾

비의도적 디자인 ‘버내쿨러(Vernacular)’⁵⁾

다양한 장소 마케팅 전략은 아시아 여러 국가의 도시들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구리 제련소와 폐기물 처리장을 예술로 승화시킨 일본의 ‘나오시마(直島町) & 테시마(手島) 섬’, 일제강점기 시대의 철도 창고를 예술가의 공간으로 활용한 대만 타이중의 ‘무지개 마을(Rainbow Village)’ 그리고 공장지대를 이용한 중국 다산쯔(大山子)의 ‘798 예술 거리’ 등은 각 정부의 강력한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다. 반면 피낭 섬의 조지타운 도시는 극히 버내쿨러(Vernacular)적이다. ‘버내쿨러 디자인’은 한 지역의 고유문화라기보다 식민지 문화나 다문화의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위상학적 대립구조를 넘어설 가능성을 갖고 있다. 위계성에 의하여 제작 의도나 계획을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노하

4) 필자 촬영

5) ‘버내쿨러(vernacular)’는 라틴어 ‘vernaculus’에서 유래한 용어로 ‘native’ 혹은 ‘indigenous’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모더니즘 문화 내에서 하위문화로 다루어지거나 보편성을 결여한 지역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사유되어 왔으나, 포스트모던 문화의 맥락에서 디자인의 새로운 대안으로 귀환하였으며 ‘지역문화’의 부상과 함께 ‘차이’가 아닌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상대주의적 전략을 구축하면서 차이를 속박하고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안영주, 탈식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버내쿨러의 문화적 위상, 한국디자인문화학회, Vol.22 No.4, 2016. pp.394-398 내용 요약).



▲ 벽을 뚫고 나온 파이프를 담배꽂초로 은유하여 연기로 인해서 방독면을 쓴 사람을 그려 넣어 공익적 이미지로 전환⁶⁾

우나 일상의 지혜를 이용해 문제점을 해결해온 시대 특유의 디자인 방식을 이르는 말이다. 이에 버내쿨러 디자인은 ‘비의도적 디자인’, ‘일상 순응적 디자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디자인 과정이 불투명하고 작가 또한 미상인 경우가 많으며 지역의 자연환경과 시대적 삶 속에 자연스럽게 누적되어 형성된다. 즉, 제한된 환경 속에서 욕구 충족을 통해 발생하며, 역사적 사건들에 의한 시간성, 생활양식과 규범에 의한 사회성, 공공재로서의 공공의 가치적 공간성 등에 영향을 받아 그 성격이 결정된다.

벽화거리(Mural Street)

조지타운은 오래된 건축물 사이로 낭만이 느껴지는 예술적 감각이 살아있는 도시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낡은 건물에는 색이 입혀졌고, 거리의 상점들은 예술가와의 협업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폐공간은 지역작가들이 참여하는 아트갤러리로 탈바꿈했다. 거리는 감각적인 카페, 인테리어 숍, 부티크 등 아름다운 파사드를 구성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인들을 끌어들이는 이유 중 하나는 거리벽화 디자인이다. 거리벽화 작업은 2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그림만으로 꾸며진 벽화(Mural), 그리고 오브제와 그림이 하나의 연결성을 갖는 설치미술(Installation)의 형식이 합쳐진 ‘혼합형 벽화’이고, 다른 하나는 스틸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입체 벽화’다. 모두 100여 점에 가까운 작품들이 거리 예술품으로 전시되어 있다. 벽화(streetart)는 과거 슬럼가에 그려진 낙서처럼 거리의 범죄 행위로 여겨지곤 했다. 그러나 팝아트의 영향을 받아 198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그 예술적

6) 필자 촬영
7) 필자 촬영



▲ 오브제로서의 오토바이와 청년의 벽화, 그리고 벽을 뚫고 나온 실제 살아있는 나무가 하나의 작품으로 변화한다. Ernest Zacharevic, Ah Quee Street, 2012.⁷⁾



▲ 버스정류장 앞 노후화된 건축 벽면에 ‘리버스(화학 물감이 아닌 수업을 이용하여 벽면에 침식된 얼룩을 제거하면서 그린 그래피티)’ 기법으로 벽화 완성, 그림의 인물은 은 세공인인 Pulau Balik라는 가게의 주인이다. ‘Hin Bus Station Project’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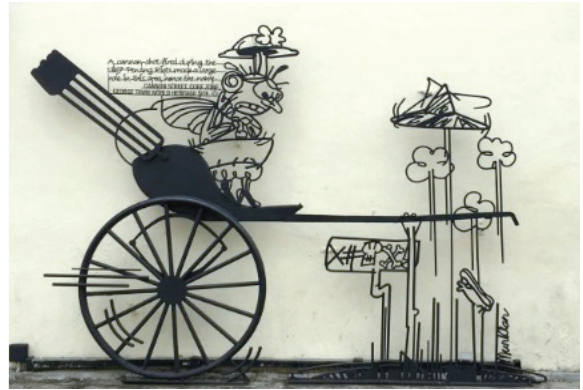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거리 예술가들의 작품이 경매장에서 고가의 가격을 인정받는가 하면, 가장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예술의 한 형태로 인식되기도 한다. 물론 거리예술은 아직도 보전성 등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점점 그 기술력이 진화하고 있다.

피낭의 거리예술은 루이스 간(Louise Gan)이라는 무명의 젊은 작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의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피낭의 거리예술은 점점 발전하기 시작해 2012년부터는 매년 정부의 지원으로 한 달 동안 ‘조지타운 페스티벌’(‘2012 Mirrors Georgetown project with Georgetown Festival’, Penang MY)’이 열리고 있으며, 전 세계 작가들이 참여하는 건설적 공공 예술 프로젝트로 발전되었다.

그중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끈 벽화 한 점이 큰 화제가 되었다. 그는 어니스트 자카르빅(Ernest Zacharevic)이라는 25살의 리투아니아 출신 말레이시아인이다. 젊은 시절 피낭 섬으로 이주하여 섬 전체를 돌아다니며 낡은 건물 벽면에 그림을 그리며 무명의 그래피티(Graffiti) 예술가로 활동해왔다. 현재는 유화, 설치, 조각 분야에서도 활동하며, 사건의 장소성, 삶에 대한 일상성, 동물 보호, 환경 등에 대한 공익성을 주제로 갤러리 공간 내부 및 외부의 벽을 활용해 작품 활동을 한다. 그리고 스텐실(stencil), 리버스(reverse), 스프레이 페인트(spray paint) 등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전 세계의 예술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유명 작가로 성장하였다.



▲ [Double Role](2013) 1909년 경찰 업무가 소방대원의 역할로 확대된 역사적 사실 설명⁹⁾



▲ [Cannon Hole] 1867년 폭동진압으로 정부의 대포 발사가 성공했겠지만 거대한 구멍 위치의 전달 부족으로 인력거 운전자가 사라지는 모습¹⁰⁾

두 번째로 소개하는 작가는 피낭 출신의 탕 문 키안(Tang Mun Kian)이다. 스틸 프레임을 이용하여 입체화시킨 그래픽 아티스트로 분류된다. 그의 작품은 지역 만화가인 바바 추아(Baba Chuah)의 풍자만화를 바탕으로 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조지타운 거리에 약 50여 점이 넘는 그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작품 소재는 피낭의 역사, 거리의 삶 등 다양한 장소적 사건들과 풍자적 이야기로 이루어진다. 일부 작품은 20세기 초 이민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고 있는데, 구세대 현지인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복잡한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작품도 있다. 그런 작품들의 경우 관광객에게 장소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몇 작품을 소개한다.

8) <http://www.ernestzacharevic.com/>

9) <https://www.penang-traveltips.com/>

10) <https://www.penang-traveltips.com/>



- ▲ [ting ting thong]
 “Seck chuan lane was a distribution centre for market produce. Many itinerant hawkers took advantage of the crowds to sell their food one of the favourite foods solds ting ting or pock candy, a hardened mixture of sugar, seeds, and nuts loved by kids. It has to be and hammered to break it into smaller bite-sized street ghaut, Seck chuan lane core zone, George town world heritage site”.¹¹⁾



- ▲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자유로운 전시장이, 시민들에게는 문화적 공간이 되는 공공재적 가치¹²⁾

조지타운 헤리티지(George Town UNESCO World Heritage Site) 부지 내에는 19세기 무역이 번창하던 시대의 상점들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 아르메니아 거리와 인디언 거리, 차이나타운에는 초기 인도 정착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Chulier Street와 중국인 부호의 이름을 딴 Seck Chuan Lane 등이 그렇다. 이들은 모두 주요 명소다. 작품 <ting ting thong>은 과거 사탕을 파는 거리 상인(Hawker)이 중앙시장을 지나갈 때마다 이 소리에 아이들이 모이고 딱딱한 사탕을 망치로 깨는 소리(팅팅통)가 들리는 모습을 풍자적인 만화로 표현했다.

11) 필자 촬영

12) 필자 촬영



▲ 예술 페스티벌의 확대¹³⁾

공공재적 가치로서 거리미술관 (Street Galley)

20세기 이후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미국과 유럽 중심이던 현대 미술시장의 축이 아시아권으로 넘어오기 시작해, 아시아의 정체성과 삶의 철학을 담은 미술작품이 주목받게 된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미술시장의 위상과 규모, 아시아권 컬렉터들의 구매력이 높아졌으며, 인도, 중앙아시아, 일본을 비롯해 우리나라 예술가와 작품도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조지타운의 페스티벌은 피낭 특유의 독창적 거리예술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었다. 젊은 작가들에게는 기회의 무대를, 또한 기성작가들에게는 전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피낭의 거리는 미술관으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생성해가기 시작한다. 기존 거리벽화와 함께 설치미술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폐공간은 참여형 갤러리로 재창조되었다. 정부의 행정적 지원으로 도시의 거리미술관은 지속적으로 확대 및 관리되고 있으며, 페스티벌은 ‘페낭섬 재즈 페스티벌(Penang Island Jazz Festival)’, ‘인-비트윈 아트 페스티벌(The In-between Arts Festival)’ 등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거리미술관은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문화, 자연, 산업유산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지역 박물관’, ‘에코뮤지엄’¹⁴⁾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지역의 장소성을 구성하는 요소인 물리적 환경과, 인간의 활동, 의미의 형성이라는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며, 또한 자발적 참여, 기억, 보상 등이 상호 교호(交互)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지역이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는 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으며, 또한 역사성을 갖는 건축 또는 외부 파사드, 폐허화된 벽 모두를 포함한다.

13) <https://www.saatchiart.com/art/Photography/>

14) 1960년대 프랑스에서 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하여 탄생한 개념으로, 생태를 뜻하는 ‘에콜로지(ecology)’와 ‘박물관(museum)’이 결합된 용어로서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자연·산업유산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수진, 이종세.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에코뮤지엄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12권 1호, 2017).



▲ 100년 흔적이 남아 있는 일본식 창고 내부 구조 모습, 청양군 정산면¹⁵⁾ ▼ 당시시 합덕읍 합덕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배경으로 남은 벽을 이용한 버네쿨러의 가능성¹⁶⁾





▲ 1920년대에 지어진 일본식 창고 건물로 현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 청양군 정산면¹⁷⁾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의 자문위원으로 10년을 활동하며 필자는 충청남도의 많은 도시와 마을을 방문하였다. 충청남도만이 보유한 수많은 콘텐츠, 그리고 ‘행정계획-전략계획-실행계획-사업구현’의 체계를 통한 공공디자인 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디자인이 발전해가는 많은 사례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 곳곳에는 사라져가는 근대 유산으로서의 건축물이나 공공재로서의 가치와 가능성을 지닌 폐허의 장소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대건축물 1개와 현재 경관 정비사업 진행 예정인 1개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모두가 우리의 자산이며,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5) 필자 촬영

16) 필자 촬영

17) 필자 촬영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의 스마트 그린오피스



나사렛대학교 플라워조경디자인학과_김준연 교수

1. 기업 아마존의 시작

1994년 데이비드 쇼(David Shaw)와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인터넷 사업에 대해 구상했다. 제프 베조스가 인터넷 서점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도 바로 이때이다. 그리고 1994년 7월, 드디어 제프 베조스는 ‘카다브라’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7개월 후인 1995년에 회사명을 ‘아마존닷컴(www.amazon.com)’으로 변경하여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아마존(Amazon)은 도서, 의류, 신발, 보석, 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미국의 온라인 커머스(Online Commerce) 회사이다. 시애틀(Seattle)의 인터넷 서점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미국 이외에도 브라질, 캐나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등 13개국에서 아마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인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 전자책 킨들(Kindle)을 비롯해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제조 판매하며 전자 상거래 이외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20년 6월 10일 기준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미국의 주가 총액 순위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아마존은 1,600조 원(미화 1,33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지닌 공룡기업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정부의 2020년 한 해 예산이 513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아마존의 기업가치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세 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다.^{1) 2)}

1)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38405&cid=43168&categoryId=43168#TABLE_OF_CONTENT1

2) 위키피디아

3) 한국일보기사 :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80130/1101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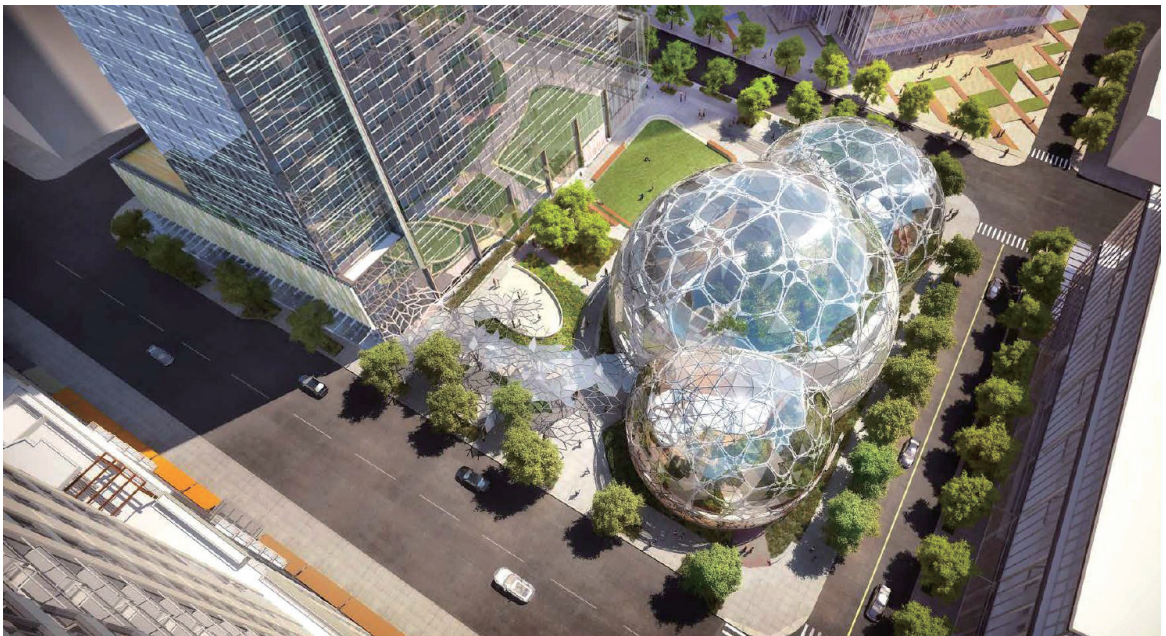
4) 출처 : 시애틀시 자료

2. 아마존 ‘더 스피어스(The Spheres)’의 개요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은 2018년 1월 29일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시에 위치한 본사(주소: 2111 7th Avenue Seattle, WA 98121) 바로 옆에 특별한 공간을 조성하여 일반에 공개했다. 바로 혁신적 업무공간인 ‘더 스피어스(The Spheres: 이하 스피어스)’다. 아마존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해 7년간 40억 달러(약 4.6조억 원)를 투자하였고, 그 결과 ‘도심 속 열대 우림’을 재현해냈다.

스피어스는 우리나라 아파트 10층 정도인 약 30m 높이에 지름 40m의 거대한 유리돔 3개가 연결된 형태이다. ‘스피어스’ 안에는 400여 종, 4만여 본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나무로 된 회의실을 비롯하여 시냇물과 작은 폭포도 설치돼 있다. 아마존은 “스피어스는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구름 속 열대 우림과 같은 일터”이며, “시애틀 내에 위치한 아마존의 ‘도시 캠퍼스’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³⁾

▼ [그림 1] 스피어스 조감도⁴⁾



▲ [그림 2] 스피어스 투시도⁵⁾▲ [그림 3]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오전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가 시애틀에 위치한 아마존 스피어스의 오픈 행사에서 설명하는 장면⁶⁾

3. 스피어스의 조성 배경

아마존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항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존 업체들과 차별화하였으며, 그 결과 지금의 아마존닷컴 신화를 이뤄냈다. 이러한 아마존만의 도전정신은 스피어스 조성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스피어스의 탄생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생각과 연구를 거듭한 끝에,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혁신적인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업무공간이 변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중요한 것은 업무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러던 중 일반적인 사무실보다는 식물로 가득 찬 업무공간에서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된다는 기존 학술연구를 기반으로 식물이 어우러진 사무 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스피어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⁷⁾

존 쇼틀러(John Schoetter) 아마존 부사장은 오프닝 행사에서 “직원들이 협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다”라고 스피어스의 건설 배경을 밝혔다. 또한 “현대 사무실에서 무엇이 빠졌는가? 우리는 잃어버린 요소가 바로 자연에 있음을 발견했다”라며 다양한 식물로 둘러싸인 혁신적인 공간 스피어스를 소개했다.⁸⁾

5) 출처 : 시애틀시 자료

6) 출처 : 데일리 사바 뉴스 https://www.dailysabah.com/business/2020/02/18/amazons-bezos-launches-10b-fund-to-combat-climate-change?gallery_image=undefined#big

7) 아마존 뉴스 : https://www.youtube.com/watch?v=sKkHO3_QDnM&t=25s

8) 동아일보기사 : <http://soda.donga.com/3/all/37/1211646/1>

4. 스피어스의 설계

아마존 스피어스는 1943년 설립된 세계적인 건축 설계 사무소인 NBBJ에서 설계를 맡았다. NBBJ는 보스턴, 콜럼버스, 홍콩, 런던,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상하이 등 세계 각지에 지점이 있으며, 7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빌딩, 인테리어, 조경,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를 설계하고 있다. NBBJ는 중국 상하이의 과거 조계지였던 와이탄의 황푸강 워터프런트 설계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레바논, 중국, 대만 등 세계 각국의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특히 국내에도 네이버 본사 건물, 삼성전자 수원공장 연구동, 일산 킨텍스 등 주요 건물들의 설계를 맡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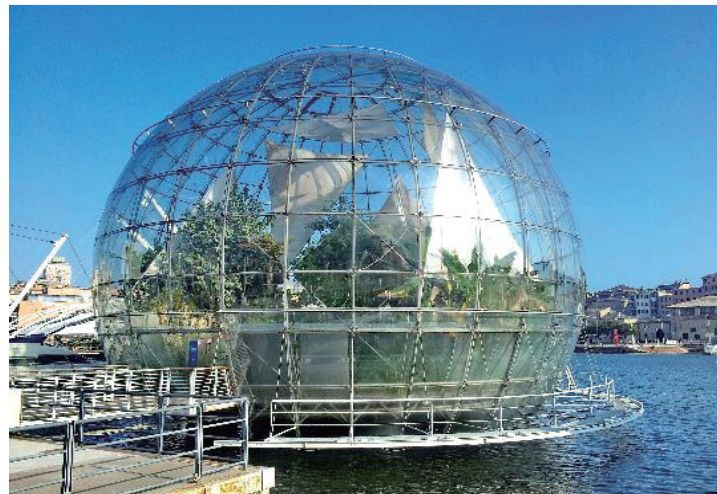
NBBJ의 설계팀은 영국의 큐 가든, 밀워키의 미셸 파크 유리온실, 이탈리아 제노바의 라 바이오스페라 등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구 형태의 온실들을 비교해 형태와 기능을 연구하였다. 영국 왕립식물원인 큐 가든은 250여 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식물원으로, 2003년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영국의 대표적인 식물원이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시에 있는 미셸 파크 유리온실(the Mitchell Park Domes)은 도널드 L. 그리브(Donald L. Grieb)가 디자인했으며, 1964년 12월에 완공되어 1965년 위스콘신 주민들에게 개방되었다. ‘라 바이오스페라’는 이탈리아 제노아 올드 포트 (Old Port of Genoa)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가 렌조 피아노 (Renzo Piano)가 2001년에 설계한 유리온실이다. 이들 유리돔 형태의 식물원 사례들은 아마존 스피어스의 설계에 도움을 주었다.



▲ [그림 4] 영국 런던 소재 왕립식물원 큐 가든 온실(Kew garden)⁹⁾



▲ [그림 5] 밀워키 미셸 파크(Milwaukee's Mitchell Park) 식물원 유리온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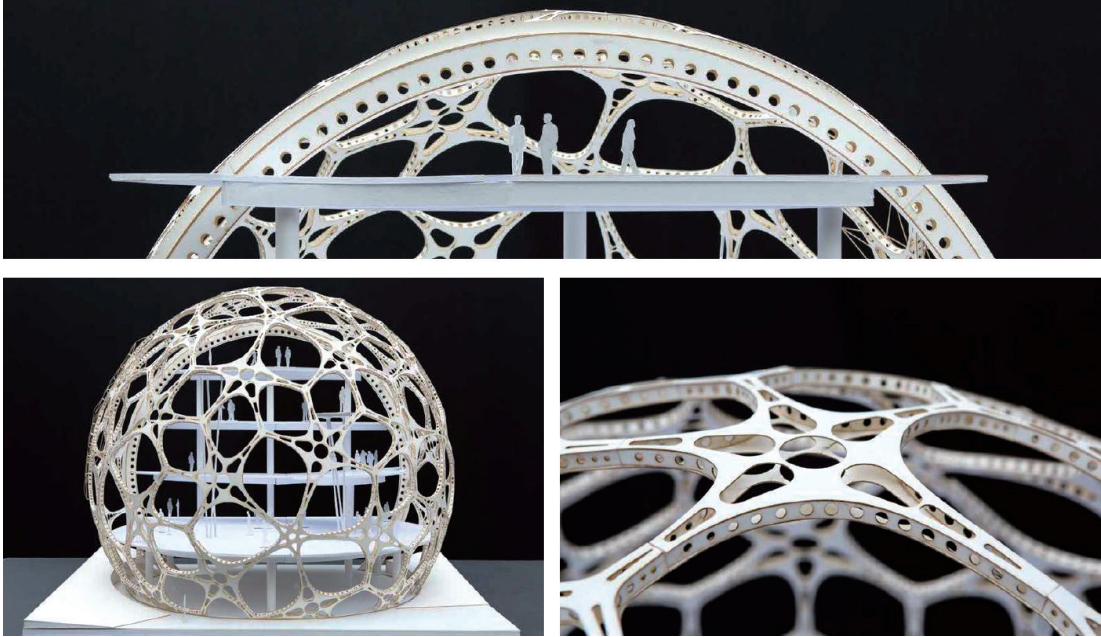


▲ [그림 6] 이탈리아 제노바, 라 바이오스페라 유리온실¹¹⁾

9) 출처 : <https://eternalexploration.wordpress.com/2012/11/04/unesco-world-heritage-site-challenge-royal-botanic-gardens-kew/>

10) 출처 : <https://www.visitmilwaukee.org/partners/mitchell-park-domes-362/>

11) 출처 : <https://www.campingvilladoria.it/biosfera-ge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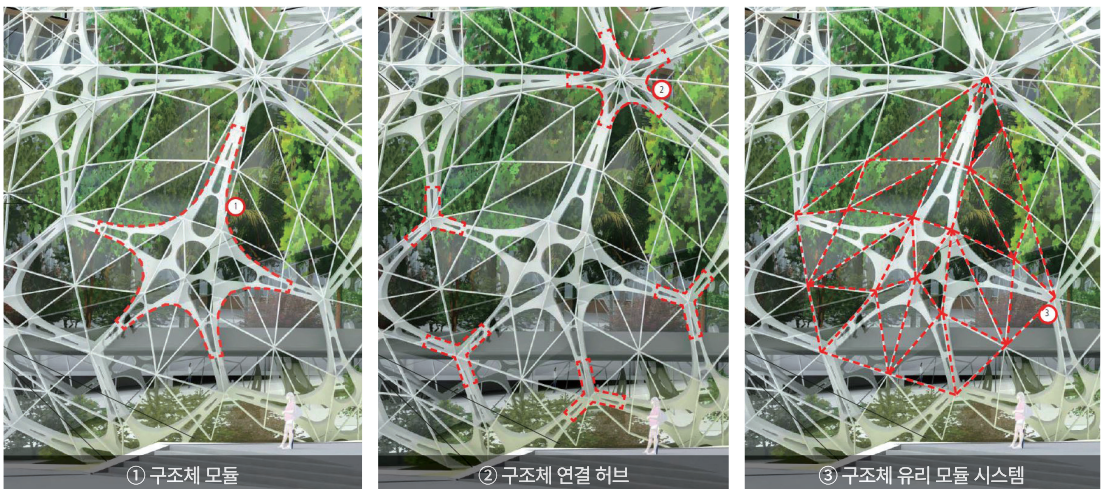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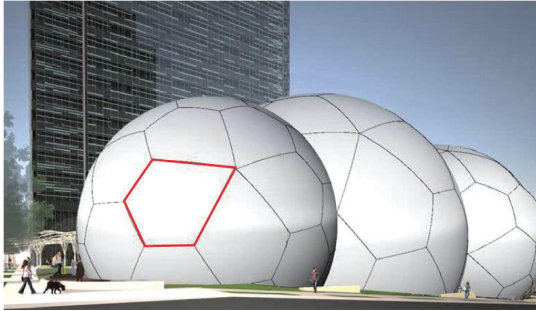
▲ [그림 7] 스피어스 구조체 모형¹²⁾

스피어스의 설계를 진행한 NBBJ는 직사각형 건물부터 고딕 양식 아치형 건물까지 다양한 스케치를 보여줬다. 그러나 최종안으로 선정된 것은 현재 스피어스의 외형인 둥근 온실 형태 스케치로, 이 둥근 구의 구조체는 정오각형이 아니라 좌우로 대칭인 길쭉한 오각형의 구조다.

- 12) 출처 : 시애틀시 자료
- 13) 출처 : 시애틀시 자료
- 14) 출처 : 시애틀시 자료
- 15) 출처 : 시애틀시 자료

▼ [그림 8] 스피어스 구조체 시스템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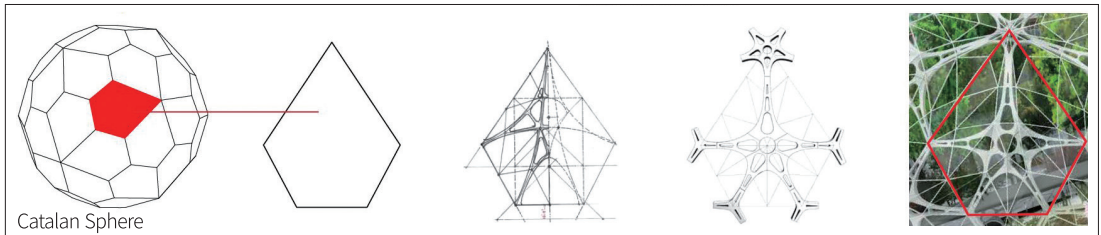




Conjoined Catalan Spheres



Structural Steel Catalan Mo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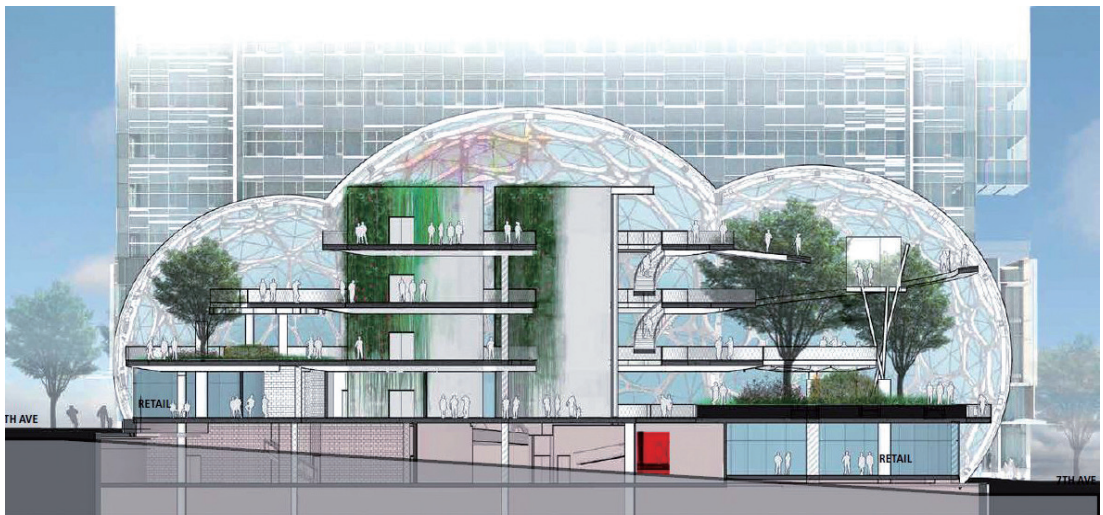


Catalan Sphere

▲ [그림 9] 스피어스 구조체 모듈 모식도¹⁴⁾

일반적인 건물들은 커튼월 방식의 철골구조 건물이든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이든 외부 구조체가 내부 구조체와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을 구성한다. 하지만 [그림 10] 단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피어스의 외부 구조체는 자체적으로 건물 외부의 형태만을 지탱하고 있으며, 내부 구조체는 외부 구조체와는 별도로 콘크리트 코어를 형성하여 내부를 지탱하고 있다. 내부와 외부가 각각 별도의 구조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중 구조 형태는 스피어스의 가장 큰 특징이다.

▼ [그림 10] 스피어스 단면도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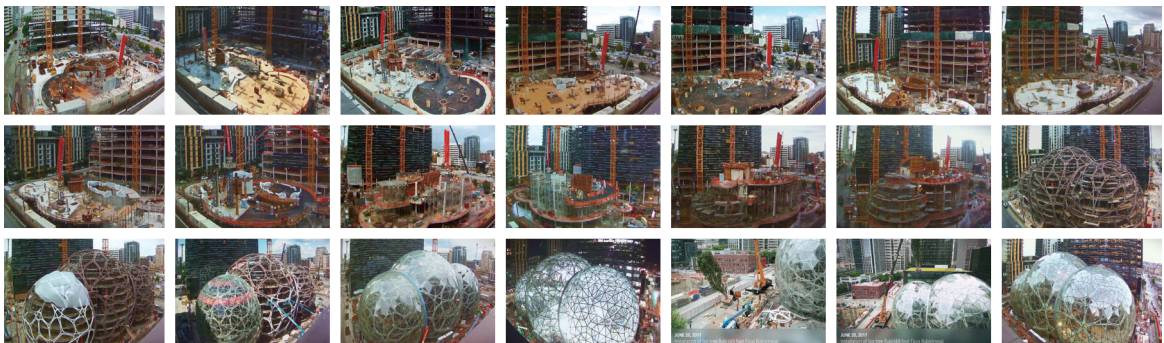
▲ [그림 11] 스피어스 사이트플랜¹⁶⁾

아마존 스피어스의 내부는 620톤의 철근과 5,400톤의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구의 바닥 부분에 40만 파운드의 링 형태의 빔이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 구조체의 위쪽으로는 기다란 오각형의 구조로 이루어진 강철 외부 구조체가 덮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5. 스피어스 건설과정

[그림 12]는 아마존 유튜브 뉴스의 한 화면으로, 2015년 5월 스피어스의 기초공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2017년 6월 20일 대형 고무나무인 루비(Rubi)가 설치되는 시기까지 스피어스가 완성되어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12] 스피어스 제작과정 타임랩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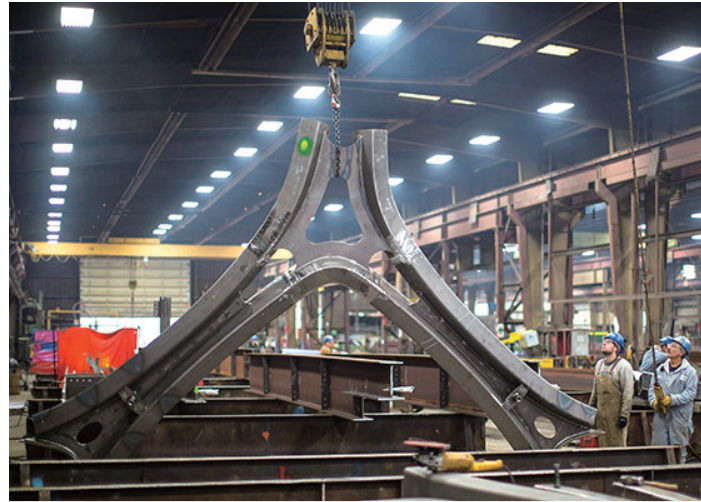


[그림 13]에서 보듯 대칭 형태의 기다란 5각형의 강철 프레임 180개를 모듈화하였으며,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완성하였다.

조립이 완성된 외부 구조체에 흰색으로 도색을 했으며, 2016년 12월에는 외부에 2,643개의 유리판을 부착하였다. 이 유리판들은 에너지 효율과 빛 투과율이 높은 특수 유리를 사용하였으며, 내부 열의 방출을 차단하기 위한 다중 필름을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6. 스피어스의 실내식물

아마존의 원예팀은 스피어스를 개장하기 수년 전부터 식물원, 농장, 전 세계의 대학에서 식물을 수집하였다. 원예식물을 수집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식물원이나 농장에서 식물을 구매하여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아마존 원예팀은 일반 시장이나 농장에서 구매가 가능한 식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희귀 식물들까지 수집해 스피어스에 두고자 했다. 사실 세계 주요 도시의 유명한 식물원들은 대부분 개인 소유가 아닌 대학이나 정부 소유인 경우가 많다. 식물 종의 연구와 보전을 위해서다. 따라서 희귀종이나 멸종위기종들은 이러한 대학이나 정부의 식물원에서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원예팀은 더욱 많은 식물 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다양한 식물종을 스피어스에 식재할 수 있었다. 2014년 4월 첫 번째 식물인 마운틴 카카오 수집을 시작으로, 2017년 5월에는 호주산 양치류인 시아테아 오스트랄리스가 스피어스에 식재되었다.



▲ [그림 13] 스피어스 외부 구조체 제작과정¹⁶⁾



▲ [그림 14] 스피어스 외부 구조체 조립과정¹⁷⁾



▲ [그림 15] 스피어스에 유리를 부착하는 장면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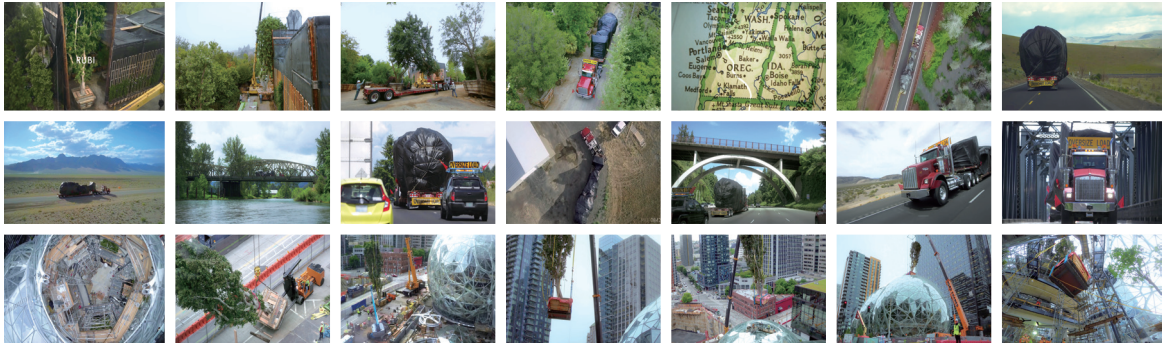
16) 출처: 시애틀시 자료

17) 출처: 아마존 유튜브 뉴스 캡처 화면

18) 출처: NBBJ 홈페이지 자료

19) 출처: NBBJ 홈페이지 자료

20) 출처: 아마존 유튜브 뉴스 캡처 화면



▲ [그림 16] 루비의 운반과정 타임랩스²¹⁾

- 스피어스의 ‘루비(Ficus Rubiginosa)’

스피어스에 식물 종이 마지막으로 식재된 것은 2017년 6월이다. 바로 스피어스에 식재된 식물 중 가장 큰 식물인 ‘루비(Ficus Rubiginosa)’다. 루비는 1969년 캘리포니아주 베릴 우드 농장에 처음 식재되어 수령이 무려 50년이 넘으며, 높이는 15m, 폭은 6.8m, 무게 16.3톤에 이른다. 고무나무 종류인 루비는 수목의 크기, 수형의 아름다움, 수종의 실내 적응력 등 다양한 이유로 선택되었으며, 농장에서 스피어스까지 1,930km를 대형 컨테이너에 실려 옮겨오게 되었다.

[그림 16]은 아마존 뉴스에서 공개한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으로 루비가 농장에서 스피어스까지 운송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17] 학생들이 스피어스에 부착될 벽면녹화 패널에 식물 모종을 식재하는 장면²²⁾



21) 출처: 아마존 유튜브 뉴스 캡처 화면

22) 출처: 스피어스 홈페이지

23) 출처: 스피어스 안내책자

- 스피어스의 벽면녹화

2017년 10월에는 벽면녹화가 진행되었다. 온실에서 25,000개 이상의 식물 모종을 식재하여 재배한 메쉬 패널을 미리 준비해 현장으로 옮겼으며, 약 2주에 걸쳐 시공하였다.

[그림 17]은 학생들이 스피어스에 식재될 식물들이 재배되고 있는 농장을 방문하여 직접 벽면녹화 패널에 식물 모종을 식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스피어스는 제작되는 과정마저도 화제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시애틀 시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스피어스 내부에는 남미 등 전 세계에서 공수한 400여 종의 식물 4만 점이 자라고 있다. 기온은 평균 20도에서 23.5도 사이를 유지하며, 습도는 60~65% 수준으로 일반적인 사무실 환경보다 조금 더 높다.

7. 스피어스의 공간 구성

원형 유리돔 세 개가 붙어있는 모양의 스피어스는 3,700㎡의 거대한 넓이를 자랑하며, 최대 8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중 가장 큰 원형 건물의 높이는 28m이다. 이곳에는 단순히 스피어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스피어스 주변의 조경, 반려동물 놀이터, 인조잔디광장, 휴게공간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 [그림 18] 스피어스 지도²³⁾





▲ [그림 19] 1층 입구 벽면녹화²⁴⁾

(1) 1층

1층에 들어서면 처음 마주하는 것이 바로 녹색의 식물 벽이다. 계단을 따라 20m가량 우뚝 솟아 있다. 벽면녹화에 사용된 식물은 200여 종, 25,000본 이상으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벽면녹화를 지나면 물과 물고기, 식물이 어우러진 비바리움을 볼 수 있고, 그 뒤로는 널찍한 휴게공간이 펼쳐진다. 휴게공간을 지나면 아마존 숲을 만날 수 있는데, 미니 아마존 정글을 재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식물로 풍성하다. 또한 바닥에 놓인 돌에 풍성하게 이끼가 낀 정도로 충분한 습도를 유지하고 있다.

▼ [그림 20] 아마존 숲의 수공간²⁵⁾



24) 출처: 필자 촬영

25) 출처: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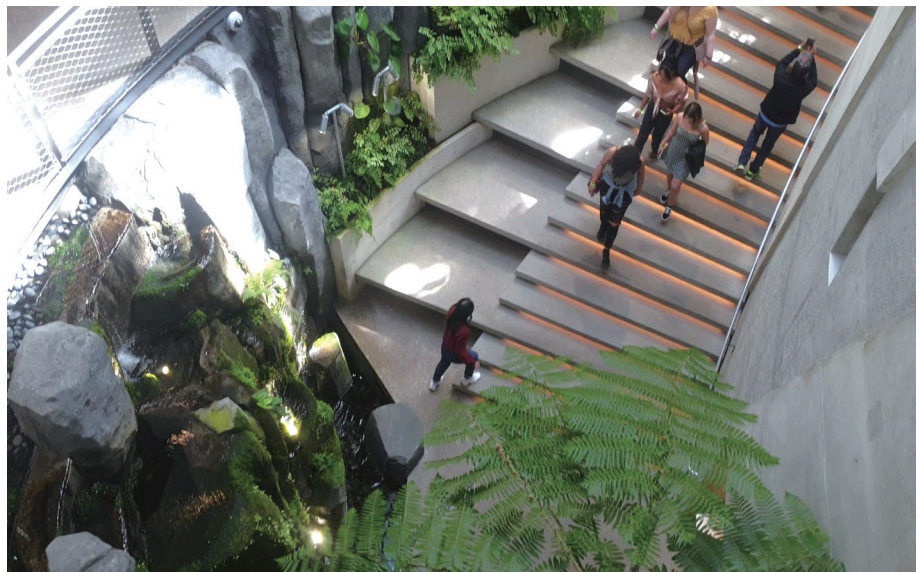


▲ [그림 21] 2층 카페 전경²⁶⁾

(2) 2층

2층에 올라가면 카페를 만날 수 있다. 일반인들도 아마존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 그대로 커피나 음료수, 간단한 다과 종류를 구매할 수 있다. 2층에도 여러 형태의 휴게공간을 배치했다. 아마존 직원들은 이곳의 넓은 테이블에서 일을 하거나, 혼자 앉을 수 있는 개인 작업 공간 겸 휴게공간에 머물 수 있다.

▼ [그림 22] 2층에서 내려다본 모습²⁷⁾



26) 출처: 필자 촬영
27) 출처: 필자 촬영



▲ [그림 23] 3층 나무 동지로 가는 연결 브리지²⁸⁾

(3) 3층

가장 특이하고 매력적인 공간이 바로 새 동지 형태로 디자인된 동지 공간이다.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결된 브리지를 지나야 한다. 이 브리지 바닥의 나무는 바닥에 굳건히 고정되어있지 않고 철골구조와 약간의 이격이 있어, 발로 디딜 때 살짝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세심한 디자인이 이곳 동지 공간으로 들어가는 이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여준다. 동지에 있으면 공중에 뜬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또한 아마존 스피어스의 대표 식물인 루비를 바로 옆에서 감상할 수 있다. 한편 3층에서는 식물 덩굴로 둘러싸인 회의공간도 볼 수 있다.

▼ [그림 24] 3층 회의공간²⁹⁾



28) 출처 : 필자 촬영
29) 출처 : 필자 촬영



▲ [그림 25] 4층 라운지³⁰⁾

(4) 4층

4층으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면 조망이 나름 불만하다. 벽면녹화 속에 흰색의 아마존 스피어스 로고가 돌출되어 있어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순서대로 사진을 찍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일종의 포토존인 셈이다.

▼ [그림 26] 4층 벽면녹화와 스피어스 로고³¹⁾



30) 출처: 필자 촬영

31) 출처: 필자 촬영

(5) 야외 공간

야외 인조잔디광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연결 램프를 올라가다 보면 양쪽으로 식재된 식물들의 아름다움에 놀라게 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반려견 놀이터가 램프 바로 옆에 있어 가까이에서 반려견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려견 놀이터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미국인들이 얼마나 반려견을 아끼고 함께 하는지 이곳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야외에 설치된 벤치나 쉼터(그늘막)는 스피어스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진다.

아마존 더 스피어스는 시애틀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 스피어스는 단순히 사무공간에 실내조경을 가득 채운 공간이 아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창의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아마존이 무려 7년 동안 40억 달러(약 4.6조원)라는 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조성한 혁신적인 업무공간이다.

이러한 아마존 더 스피어스와 같은 새로운 시도를 충청남도 내 포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이는 근로자의 업무역량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으며, 많은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충청남도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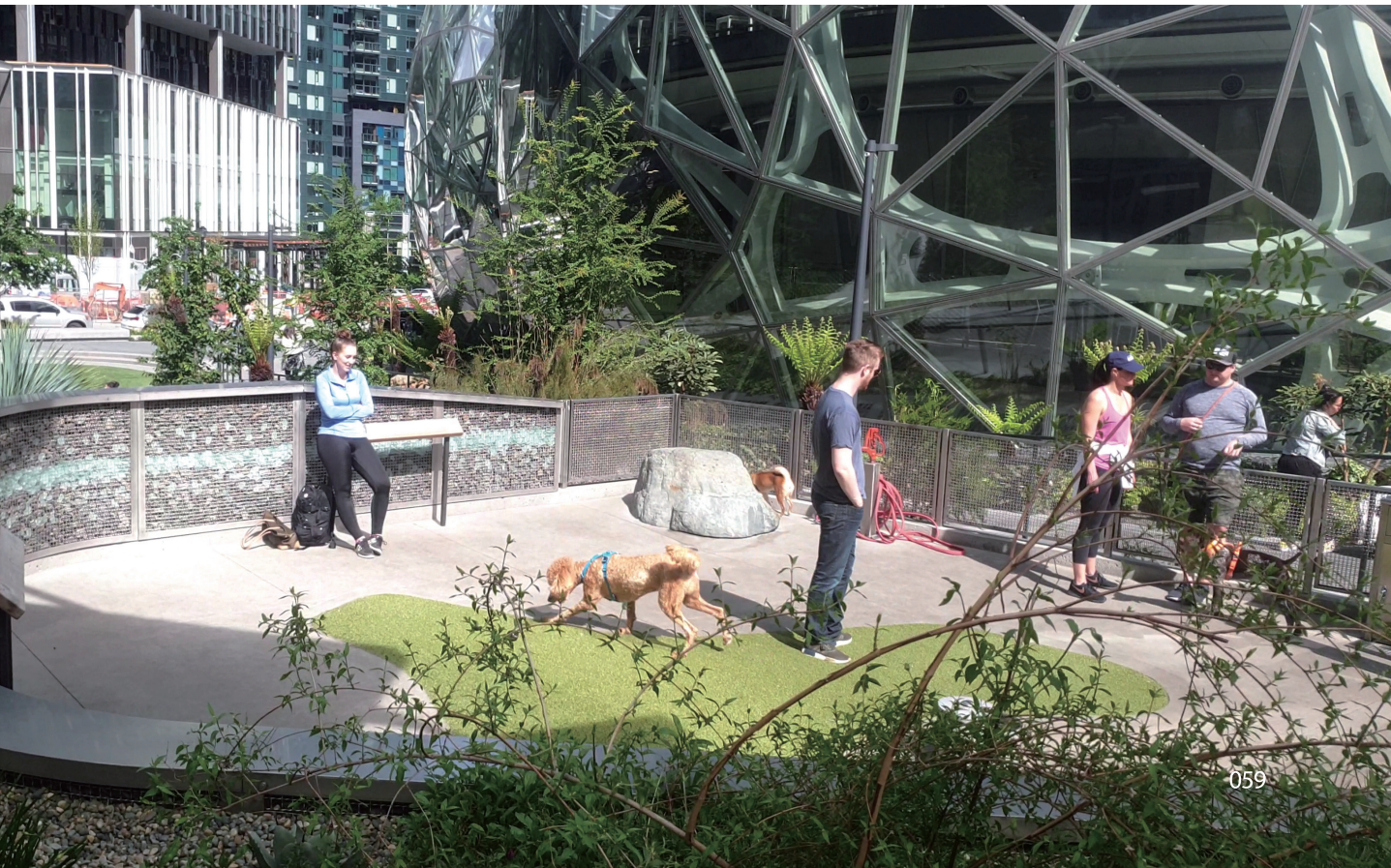
32) 출처: 필자 촬영

33) 출처: 필자 촬영



▲ [그림 27] 야외 전경³²⁾

▼ [그림 28] 야외 반려견 놀이터³³⁾



TEAM

당진시

의여차 줄로 하나 되는 문화거리 조성사업



당진시 건축과 도시디자인팀_류미순 팀장

줄다리기 의미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는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식의 하나인 <기지시 줄다리기>가 500여 년 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농촌사회의 협동의식과 민족 생활의 변화 등 문화적 의미를 지닌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지시 줄다리기 모습¹⁾





▲ 당제 지내는 모습 ①, ②²⁾

<기지사 줄다리기 축제> 개최를 위해 ‘줄다리기 보존회’는 한 달 전부터 줄을 꼬기 시작한다. 500여 명의 줄 꼬기 전문가가 둘레 3m, 길이 120~130m 정도의 줄을 제작하게 되며, 제작을 마치면 그 줄을 축제장으로 옮겨 줄다리기를 진행한다. 한편 줄다리기는 음력 3월 초에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낸 다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5천여 명이 우렁찬 함성과 함께 줄을 당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이렇게 가치 있는 문화유산인 만큼, 1년에 한 번 기억되는 축제가 아니라 수시로 방문해 그 감흥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는 축제로의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또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고장에 걸맞은 고품격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기지사 줄다리기 거리>를 새롭게 디자인해 보기로 하였다.

- 1) 출처: 당진시
- 2) 출처: 당진시
- 3) 출처: 당진시

▼ 줄꼬기 모습 ①, ②, ③³⁾



사업 추진을 위해 제일 먼저 사업 구간 내 주변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다.

주변 지역 현황 및 문제점

- 입구에 석재로 만들어진 안내판이 있으나 줄다리기와 연계성이 다소 부족



▲ 비석 원경 및 근경 모습 ①, ②⁴⁾

- 줄 제작장 및 행사장에 특별한 장소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일회적인 성격의 것이어서, 평상시에는 줄다리기와 관련하여 인지 가능한 매체가 없음



▲ 기존 줄 통,문,줄 제작장 모습 ①, ②⁵⁾



▲ 기존 '줄 나가기 거리' 모습⁶⁾

- '줄 나가기 거리' 등 행사장 진입 구간에 보행통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보행객의 수가 적을 시 대형트럭의 잦은 통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음. 또한, 행사 추진 시에 설치되는 임시시설물은 경관을 고려하지 않음



▲ ‘줄 제작장’부터 ‘축제장’까지의 동선⁷⁾

위 현장조사를 통해 우리는 기지시 줄다리기의 주인공인 ‘줄’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줄로 하나 되는 문화거리 조성’이라는 디자인 콘셉트를 설정했다. 가령 ‘줄이 통과하는 문’의 경우, 매년 행사 기간에만 일회적으로 설치된다. 이 문을 항상 사용하고 또 볼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처럼 약 500m의 ‘줄나가기 거리’ 전체를 스토리가 있는 테마 거리로 조성하기로 방향을 수립했다.

거리 조성에 있어 중요하게 염두에 둔 것은 공간, 문화, 세대를 잇고자 하는 “이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 공간의 이음: 일체감 있는 시설물 계획 및 공간별 특화계획으로 줄 제작장, 줄나가기 거리, 줄다리기 행사장 각각의 공간을 확장하여 연계시킴
- 문화의 이음: 기지시 줄다리기의 정체성이 담긴 디자인 계획을 통해, 당진 고유의 문화를 잇고,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보도 구간을 활용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세대의 이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게 함

전체 공간을 ‘줄을 통한 이음’의 이미지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따라서 줄제작장부터 줄 통, 문 등 각 공간과 줄다리기의 연관성을 드러내고, 이 구간 전체에 통일된 느낌을 부여하기 위해 시설물을 배치하였다.

4) 출처: 당진시

5) 출처: 당진시

6) 출처: 당진시

7) 출처: 당진시



▲ 줄 제작장 근경 및 원경 사진 ①, ②⁸⁾

1. 줄 제작장

하수 종말 처리장 전면의 빈 공간에 ‘줄 제작장’이라는 글자 조형물을 설치했다.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글자 위에 앉을 수 있어 벤치로도 활용할 수 있다.

2. 줄 전시함

줄 제작장에 와서 줄 제작 장면을 보는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고자, 줄의 완성된 이미지를 보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작장 내에 줄 전시함을 설치하였다. 실제 줄을 축소한 형태로 모형을 별도 제작해 상시 전시하게 되며, 이는 행사가 없을 때라도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줄 제작 과정 및 형태를 이해하고 즐기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줄 전시함’ 모습⁹⁾

- 8) 출처: 필자 촬영
- 9) 출처: 필자 촬영
- 10) 출처: 필자 촬영



3. 줄 나가기 거리 조형물

줄 제작장에서부터 실제 축제가 개최되는 줄다리기 축제장까지의 구간에, 3개의 포켓 조형물을 배치했다. ‘포토존’, ‘줄다리기 체험’, ‘기지시 줄다리기 유래’ 등의 조형물이며, 보행자에게 재미와 휴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태양광 LED 가로등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 줄다리기 체험, 줄다리기 설명 조형물 및 가로등 사진 ①, ②, ③, ④¹⁰⁾

4. 줄 통과 의 문

‘줄 나가기’ 길을 따라가다 보면 대형 조형물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바로 줄 머리 모양을 형상화한 ‘줄 통과 의 문’ 메인 조형물이다. 송악읍 기지시리를 대표하는 독창적인 상징물이자 조형물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줄다리기 명소로서의 위상이 뿔어져 나오는 듯하다.



▲ 설치된 줄 통과 의 문 모습 ①, ②, ③¹¹⁾



사업을 진행했던 때를 돌이켜보면, 조형물 기초공사 자리에 각종 상하수도 배관이 존재해 땅파기 작업을 할 때마다 두근거렸던 기억, 줄 통과와 문 파이프 제작 공정이 순조롭지 않아 애태우던 순간 등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현장여건, 기술력, 민원 발생 등의 문제로 애태우는 일이 많다. 그럼에도 사업 완료 후 모습을 드러낸 결과물은 그 과정에서의 노고를 전부 잊게 만드는 선물인 것 같다.

디자인이 예술의 영역이다 보니, 아주 작은 선 하나, 색 하나, 심지어 분위기까지도 업체에 까다롭게 요구했다. 우리 당진시와 긴밀히 협조해 최선을 다해준 업체에 감사하다. 또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의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사업 구간이 중첩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시작부터 완료까지 당진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도움을 준 종합건설사업소 담당자 및 토목공사 현장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줄다리기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현장에 배치된 조형물들이 축제와 함께 빛을 발하길 기대해본다.

11) 출처: 필자 촬영

FOCUS ON

센터소식

- 072 '2020 경관·공공디자인·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 워크숍' 지원
- 074 광역도 최초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승인,
전국 최초 온라인 업무 시스템 적용
- 075 2014~2019 연구성과

‘2020 경관·공공디자인·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 워크숍’ 지원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경관디자인팀)에서 경관·공공디자인·옥외광고물 분야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소통을 위한 「2020 경관·공공디자인·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지난 6월 5일(금), 충청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해당 분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마인드 향상, 시·군 간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에서 공공디자인과 경관협정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우선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관련제도 현황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오병찬 센터장(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이 발표했다. 공공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사업의 기본 개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현황과 내용을 관련 법과 제도를 언급하며 설명하였고, 15개 시·군의 공공디자인 관리를 위해서는 디자인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야 디자인 관리를 위한 행정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유일하게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제도와 지원 사례를 설명하며, 공공사업의 디자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로는 ‘경관협정제도의 이해와 행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박혜은 박사(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의 발표가 있었다. 경관협정제도의 도입배경, 체결대상 및 내용, 체결방법 및 추진주체 등 경관협정의 주요 내용과 행정의 역할을 ‘수원 거북시장길’ 사례를 들어 시·군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충남형 경관협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유도 > 기획 > 체결 > 사업추진 및 운영) 추진내용 및 절차, 주체별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충남형 경관협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각 사업주체(주민, 행정,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세 번째는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및 우수사례’를 주제로 이미선 연구원(한국옥외광고센터)이 발표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간판개선사업 추진 현황과 간판디자인의 구성요소와 채널문자 제작방식, 설치 유형, 정렬방식, 색채, 조명 등 채널문자 디자인 시 검토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아름다운 간판 문화 조성을 위한 요소들을 간판개선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사업 진행시 그래픽, 색채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주영 주무관(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이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하였다. 충청남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의 내용과 이와 연계하여 시·군 조례 개정에 대한 협조사항, 경관·공공디자인 심의 제도와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경관·공공디자인 심의 사전검토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2020년 경관협정 시범사업의 주요 추진내용과 공공건축물 사업 규모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절차도 설명하였으며, 이외에 2020년 국토교통부 경관분야 주요정책을 공유하며, 충청남도 현안에 맞는 경관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및 추진에 있어서 시·군 담당자들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시·군 담당자들의 의견수렴이 이어졌다. 우선 2020년 경관협정 우수사업(수원 거북시장길) 벤치마킹 추진 의견이 있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진행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기로 한 것, 그리고 유니버설·범죄예방디자인 등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조례 안이 내려옴에 따라 각 시·군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하반기에 의견수렴 및 협의의 장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15개 시·군의 경관·공공디자인·옥외광고물 분야 등 디자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로 인해 담당자들이 바뀔에 따라 직원들의 역량강화, 업무 공유 및 상호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광역시 최초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승인, 전국 최초 온라인 업무 시스템 적용

충청남도는 광역도 최초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으며,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건축지원 업무는 공공건축사업의 부실한 기획을 예방하고,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충청남도과 15개 시·군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설계비 추정 1억 원 이상)와 건축기획, 발주, 디자인 관리 등 공공건축 관련 자문에 대한 응답, 공공건축 DB 구축 등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 관련 자문 및 응답 등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까지, 월 1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공문 접수 또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사전검토 결과는 접수 기준일로 부터 30일내 회신(공휴일 및 미비서류, 자료보완 기간은 제외)하며, 이 외의 공공건축 관련 자문 및 응답, DB 구축은 상시 운영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홈페이지(www.cpdcre.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도내 공공건축 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품격 있는 공공건축과 공간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으며,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에서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4~2019 연구성과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충청남도 경관·공공디자인 실태조사 충청남도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건축물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청남도 공사용 가림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전략과제]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개발 연구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경관심의 개선 및 운영방안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사업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충청남도 홍보매체디자인 가이드라인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농촌주거환경 개선방안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사업 발전방안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전략과제] 충청남도 경관기록화사업 추진방안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해안경관 실태 및 관련계획 분석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충청남도 문화재 표지판디자인 가이드라인 [현안과제] 충청남도 정책홍보 방안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컨설팅 운영방안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 충청남도 관광안내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남도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방안 고령화사회의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공공건축)

국내 정책동향

078 중앙부처

085 광역지방자치단체

096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중앙부처

건축 및 도시

제2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상 - 양산사송지구

2019. 12. 09.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관리과

국토교통부는 「제2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국민들이 직접 ‘내가 살고 싶은 집’으로 뽑은 <양산사송지구 - 길 위의 이야기를 담은 커뮤니티 갤러리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공모전으로, 기본적인 품질은 물론이고 디자인, 편의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9년 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단절과 고립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마을을 열고 마음을 잇다”라는 주제로 추진되었다.

▼ 제2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상 - 양산사송지구



터새로이 지원정책으로 노후 저층주거지의 집수리·리모델링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2019. 12. 12. | 국토교통부 | 주거재생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새로이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터새로이 지원정책」은 집수리·리모델링 관련 우량업체를 육성·

지원하여 해당 시장을 정상화·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정책이다. 「터새로이 사업」의 공공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네 기술자, 집수리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터새로이 사업자’를 육성하고 이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공유를 통해 우수 사업자를 양성하는 한편, 표준시방서 등 표준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터새로이 사업」 품질관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에 민간전문가 힘 보탠다.

2019. 12. 22.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 최초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건축가 위촉을 시작으로 민간전문가 제도가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부처, 공공기관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세계적 수준의 도시건축박물관으로 건립·운영하여 대한민국 대표 전시·문화시설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공공건축 성과평가 용역 완료

2019. 12. 2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공건축추진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공공건축 성과평가」를 위한 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의 내용은 총 19개 공공건축물의 사업 과정 및 사용실태에 대한 평가이다. 용역진은 사업 추진과정 문헌 자료를 검토하고, 주요 공공건축물 5개소에 대한 사용자 대면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녹색건축정책의 새로운 도약,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0~2024)」 시행

2020. 01. 08.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5년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선제적 이행,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신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②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③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④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 ⑤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등이다.

빈집을 활용한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동네가 새롭게 태어난다.

2020. 02. 26. | 국토교통부 | 주거재생과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택을 착공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최장 8년간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로 살 수 있다. 또한 주택 저층부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어서,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자율주택 정비사업지 인근에 뉴딜 사업비로 ‘주차구역 확보 사업’, ‘무인 택배함 설치’, ‘골목길 개선 사업’ 등 생활 SOC를 확충하는 동시에 민간은 주택도시시기금 용자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낙후된 노후 주거지가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개선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 약 70곳 선정한다.

2020. 03. 01.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역량과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본 사업은 주민 거점 공간·공동육아방 등 주민 공동공간을 조성

하는 사업과 재생학교 운영·마을 축제 개최 등 주민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이번 공모에서는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사항도 추가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생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 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자원과 여건을 충분히 조사하고, 지자체가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작성·신청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주민의 필요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이 세워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②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주체·대상·재원조달 등의 내용을 담은 운영계획을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재생사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여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순 미관 정비 등 소모성 사업은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③ 선정 일정도 바뀐다. 상·하반기 연 2회 진행되던 선정 과정이 1회로 줄어들며, 그 대신 조기 선정하여 지자체의 사업 준비 및 예산집행기간을 충분히 늘린다는 계획이다. ④ 국토교통부·한국도지주택공사·지자체 간 사업추진 협력체계를 갖추어 선정된 지자체가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맞손, 「공공주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본격 추진

2020. 03. 11. | 국토교통부 | 주거재생과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실시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용자도 지원하고 있어 최근 활성화되는 추세다. 또한 공공성 요건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을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시행령 개정 등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지를 발굴하여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사례집 발간

2020. 03. 15.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역량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중 30곳을 선별하여 『2020 도시재생사업 30선(選)』이라는 이름으로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14년부터 진행된 도시재생사업 중 지자체가 추천한 사례를 지역별로 선별한 뒤, 구체적인 성과와 내용을 직관적으로 구성하여 도시재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 추진 지자체와 담당 센터의 연락처도 기재하여 추진 노하우 등 궁금한 사항을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권으로 보는 제로에너지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2020. 03. 24.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발간하였다. 2020년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는 이와 같은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하여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이다.

공공주택, 차별화된 특화설계로 품격을 높인다.

2020. 04. 07.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관리과

주택건축의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6월에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물량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난 높은 품격의 주택공급을 위해 2018년부터 디자인 특화 설계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새로운 공간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2020.04.09.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건축혁신지원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제75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후속 조치로 출범하였으며,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범정부 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위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 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 통합계획 적용’ 등의 주요 성과를 도출하였다.

10년 방치 거창 숙박시설 ‘행복주택’으로 재탄생

2020. 04. 22.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경상남도 거창군 숙박시설에 대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바로 설계에 착수하는 등 방치건축물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복주택 63세대를 신축할 예정이다. 이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방을 설치하는 등 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숙박시설의 경우, 골조가 구조적으로 안전하여 철거 없이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약 3개월 이상 공사 기간을 단축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경상남도 거창군)



쪽방촌 정비 등을 위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05. 12.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기획과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 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① 공원·녹지 확보 기준 변경, ②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 신설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쪽방촌 등 도심 취약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전했다.

이용하기 불편했던 노후역사가 행복주택을 만나 새롭게 태어납니다.

2020. 05. 14. | 국토교통부 | 공공택지관리과

국토교통부는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복합역사로 재탄생시키는 한편, 폐저유조 부지를 활용하여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의 청년 수요를 유인할 주택, 창업공간, 편의시설 등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이 도심 내 노후한 역사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쇠퇴한 도심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사업



경관 및 공공공간

사람 떠난 통영 폐조선소에 창업공간 들어선다.

2019. 12. 09.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경제과

국토교통부의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이 문을 연다.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조선업 침체로 문을 닫은 폐조선소의 본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지원 공간으로 조성한 뒤,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영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제안하여 2017년 12월 선정된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국고보조로 창업지원시설, 복지시설, 주민소통공간과 해양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폐조선소 부지에는 민간투자를 통해 숙박, 상업, 업무, 주거 및 문화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사진출처: 통영시청)



단양군 역사문화길, 서천군 장항도시탐험역 지역정책 최우수사업 선정

2019. 12. 11. | 국토교통부 | 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가 「2019년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지역정책 우수사례는 ① 충청북도 단양군 「수양개 역사문화길」(관광), ② 충청남도 예산군 「국내 최장 예당호 출렁다리」(관광), ③ 강원도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조성사업」(관광), ④ 충청남도 서천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장항도시탐험역」(산업·주민복지), ⑤ 경상북도 문경시 「제조업의 첨병 신기 제2일반사업단지」(산업·주민복지), ⑥ 전라북도 진안군

「고원 Industrial-Culture 복합공간 조성사업」(산업·주민복지)이다.

▼ 충청북도 단양군 '수양개 역사문화길'



농·산·어촌, 산업단지, 접경지역을 국민과 함께 '100년 국토경관'으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2020. 01. 02.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하였다.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2015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2015~2019)이 종료됨에 따라 2020~2024년까지 국토경관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이에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3대 추진전략과 6대 정책과제, 18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추진전략은 ①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 ② 우수경관 형성·관리, ③ 경관문화 창출·확산이다.

▼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추진전략	I.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	II. 우수경관 형성·관리	III. 경관문화 창출·확산
정책과제	1. 경관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1-1. 경관관리 소외지역 해소 1-2. 경관관리 구역, 지구 활성화 1-3. 경관제도 운영 효율화	3. 공공 선도사업 추진 및 지원 3-1. 생활경관 개선사업 추진 3-2. 국가주도 대표경관 형성 3-3. 아름다운 국토경관 선정	5. 국민 경관인식 향상 5-1. 경관문화 활성화 5-2. 주민 경관교육체계 마련 5-3. 국민의식 조사체계 구축
	2. 경관관리 기반 강화 2-1. 경관관리 주체 전문성 강화 2-2. 경관관리 저변 확대 2-3. 경관관리 기술개발	4. 국토경관 진단 및 평가 4-1. 경관자원 발굴·조사 지원 4-2. 경관관리 수준 진단 4-3. 국토경관 활용	6. 국민 경관참여 확대 6-1. 국민참여 수단 다양화 6-2. 경관협정 활성화 6-3. 참여·제안 체계화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 사업에 충청남도 최종 선정

2020. 02. 16. | 행정안전부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행정안전부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 사업에 충청남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민·관·산·학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모여 지역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이다. 회의실, 다목적실, 입주단체 사무공간, 다양한 만남과 교류를 위한 공유공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향후 '소통협력공간'은 조례 제정, 공간 새단장, 운영자 모집 등을 거쳐 2020년도 하반기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2021년에 정식 개소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민이 공간의 주인이 되는 2020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본격 추진

2020. 03. 04. | 행정안전부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사업 주체를 선정하여 3년 동안 전국 약 75건의 지역자산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은행은 2020년도부터 3년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재원을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지역자산화 사업주체 당 최대 5억 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사 등 3곳 노후 공공건축물, 주차장·돌봄 커뮤니티 갖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2020. 05. 07.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선도사업지는 ① 수원 세류 동행센터, ② 안산 본오2동 주민센터, ③ 대전광역시 중구청사이다.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관계 기관은 리뉴얼 선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민간 전문가 손잡고 지역경관·경제 활성화 이끈다.

2020. 05. 07.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2020 민간전문가-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대상지에 대해서도 연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확산은 물론이고, 기반정책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예비건축가의 활동도 지원한다. 이번 활동 지원이 청년예비건축가의 사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건축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전했다.

마을만들기

스마트폰으로 마을 총회 열고, 사물인터넷으로 독거노인 돌보고

2019. 12. 06. | 행정안전부 | 주민참여협업과

행정안전부는 2019년 민간기관 대상의 「디지털로 지역격차 허물기 공모(지역격차 완화 사업)」에서 선정된 8개 과제, 지자체 대상의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공감e가득)」에서 선정된 10개 과제 등 총 18개 과제 가운데 분야별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그중 「디지털로 지역격차 허물기 공모」 최우수상은 「마을e책적, 지역문제 해결 중심의 마을 리빙랩 플랫폼」이 받았다. 이 사업은 온라인 마을 총회 기능을 구현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 의제를 선정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동네 한 바퀴 기능을 통해 마을 문제 해결에 필요한 디지털 지도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당 사례들을 다른 지자체와 기관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과제별 성과 자료는 지역혁신 모바일 웹을 통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10곳 선정

2019. 12. 23.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총괄과

국토교통부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강원도 정선군, 전라북도 장수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전국에 10개 지구를 선정했다. ‘강원도 정선군 사업 대상지’는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함께,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보건소, 우체국 등 인근에 다수의 생활편익시설이 위치해 있어 공공주택사업지로 적절한 곳이다. ‘전라북도 장수군 사업 대상지’는 19번·26번 국도선 변에 위치해 있으며, 면사무소, 버스터미널, 도서관 등 많은 생활편익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한 관내 3개 농공단지와 인접해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 한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업 대상지’는 남창역·부울고속도로·14번 국도선과 가까워 교통이 양호하며, 읍사무소, 농협, 우체국 등 다수의 생활편익시설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또한 온산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특히 젊은 층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곳이다.

행정안전부, 지역 내 마을기업 육성·집중투자로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

2020. 02. 19. | 행정안전부 | 지역공동체과

행정안전부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해 탄생한 마을기업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과 주민이 힘을 모아 마을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총괄·기획 및 신규마을기업 지정, 전라남도도와 경상북도도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순천시와 의성군은 마을기업 자원 발굴과 주민 역량 교육, 판로·유통 지원 등을 맡게 된다.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육성에 20억,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16억 원 투입

2020. 05. 04. | 행정안전부 | 주민참여협업과

행정안전부가 ‘마을공방’과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지역 문제의 해소 및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을공방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특히 2020년도에는 마을공방과 함께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해줄 수 있도록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시장 경쟁 속에서 생존하도록 최소한의 판로를 지원하는 유통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설물 사용자라면 누구나 “앱으로 안전점검 결과 한눈에”

2020. 04. 01. | 국토교통부 | 시설안전과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율안전점검 모바일서비스 앱>을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율안전점검 앱은 ‘안전점검 실시하기’ 기능과 함께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안전제도 알아보기’, ‘점검요령 동영상’ 등 ‘안전교육 학습하기’, 점검결과를 문의할 수 있는 ‘안전활동 지원받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편한 안전점검 앱이 배포되면 시설관리자 등의 접근성이 높아져 안전점검을 습관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2020. 02. 19. | 국토교통부 | 시설안전과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규모 파손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규모 파손은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 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한다. 또한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계획도 수립한다.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일반 제원, 설계도서,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속적·의도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업체 등의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or.kr)에 1년간 게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명단 공개를 통해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할 계획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건축 및 도시

서울특별시, 「제5회 공동체주택 심포지엄」 개최

2019. 12. 19. | 서울특별시 |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서울특별시는 ‘공동체주택’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 관련 분야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제5회 공동체주택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서울특별시는 주택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육아, 노인 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형태인 ‘공동체주택’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동체주택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공동체주택과 기업형 커뮤니티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및 금융상품 지원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서울특별시, 공공·민간소유 ‘우수건축자산’ 8개소 등록

2020. 02. 05.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서울특별시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일대 도심에 위치한 건축물 등 8개소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건축물로는 북촌 한옥청(가회동), 서울공예박물관 직물관(안국동),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강당(청파동), 경복고등학교 체육관(청운동) 등 공공부문 4개소와 공공일호(구 샘터사옥, 동송동) 민간부문 건축물 1개소이다. 그 외 도시조직의 원형이 잘 보존되었거나 서울특별시 최초로 건설되는 등 모델이 된 사례로 역사적·사회문화적·경관적 가치를 가진 문화문로, 사적터널, 명동지하상가 3개소가 우수건축자산(공간환경 및 기반시설 부문)으로 등록되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현장 이야기를 담은 「Re-Seoul 함께 읽는 도시재생」 발간

2020. 02. 12. | 서울특별시 |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가 ‘도시재생 시범지역(5개)’의 생생한 도시재생 현장 이야기를 담은 「Re-Seoul 함께 읽는 도시재생(8권, 1세트)」을 발간했다. 서울특별시는 이미 사업이 마무리되었거나, 2020년에 마무리 예정인 8곳의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책자에 가감 없이 모두 기록하였으며, 재생사업 지역별 추진 과정을 주민, 마을 활동가, 재생센터 등 현장 참여자들의 시각에서 서술하였다. 본 책자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속에 깃든 삶의 모습과 각 지역의 역사문화, 각 지역만의 독특한 인적·물적 자원 등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계획 기록 17만 건 디지털 아카이브로 제공

2020. 03. 02. | 서울특별시 |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서울특별시가 생산·보유한 중요 공공기록을 제공한다. SDA 오픈과 함께 ‘주택·도시계획’ 기록 약 17만 건을 정리하여 시민에게 우선 공개하고, 3월 안에 청도 문서고 이관 기록과 마이크로필름 스캔 기록 총 115만여 건을 추가로 탑재한다. 또한 시민들에게 정확한 기록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기록원은 2020년에도 소장 기록 정리·기술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2020년에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사진, 필름 등 이미지 형태의 기록을 정리·기술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이미지 파일과 함께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록정보서비스의 양과 질을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지자체 최초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2020. 03. 13. | 서울특별시 |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가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내에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물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 단계인 ‘건축기획’ 분야를 전담하게 된다. 시, 자치구, 사업소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검토,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발주방식·디자인 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검토는 공공건축물 사업과 관련해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원체계 및 기획단계 부실로 인해 획일적 디자인, 과대·과다 시설 초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화된 업무다.

부산광역시, 건강한 녹색 도시 만들기 본격 시동!

2020. 03. 25. | 부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부산광역시는 건물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노후된 기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보다 향상되어 에너지 소비 절감, 미세먼지 감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대상지로 영도구(절영산책로 거점센터), 수영구(다함께 돌봄센터 2·3호점), 사상구(주례 고은어린이집) 등 4개 건축물을 선정했다.

부산 해양산업의 핵심 시설!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축 설계 공모

2020. 03. 26. | 부산광역시 | 총괄건축기획과

부산광역시가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설계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는 마리나 선박의 기술 연구 및 교육·판매·검사·수리 등 원스톱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여 레저선박 기술 개발, 기업의 창업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국제관광도시로서 해양문화 활성화 등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핵심 시설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설계 공모를 통하여

공공성을 갖춘 우수한 디자인 설계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조성하게 된다.

한눈에 보는 ‘부산지역 변천사’

2020. 04. 17. | 부산광역시 | 토지정보과

부산광역시가 부산의 산지와 하천 등 지리적 변천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 항공사진 정사영상(正射映像)’을 제작한다. 먼저, 1988년도에 생성한 아날로그 항공사진 약 1천 매를 활용해 정사영상을 제작한다. 소요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전액 시비이다. 이번 정사영상 제작이 완료되면 지적도와 도시계획 등 각종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고품질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주택 건설 명문 도시 다시 꿈꾼다!

2020. 01. 23.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한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시공자 선정 시에는 최대 20%, 설계자 선정 시에는 최대 3%까지 지원하며, 최대 23%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19년도에 이어 2020년에 구·군과 함께 지역업체들이 수주 활동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원하고, 정비사업에 관심이 많은 조합원·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아카데미’ 과정을 홍보하는 등 지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양한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진안전 시설물, 시민 눈으로 확인한다.

2020. 01. 30.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2020년도부터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으려면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 성능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광역시는 신청 대상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의를 거친 뒤,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 명판’을 발급한다. 한편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를 최대 90%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도서관 변신... 국제 설계공모전 당선작 선정

2020. 02. 10.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옛 상무소각장을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한 「국제 설계 공모」에 세르비아 브라니슬라프 레딕의 작품이 선정됐다. 지표면 아래의 공간과 소각장을 연결하는 브리지를 다양한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제시하고, 주변 공간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뚜렷한 수평적 랜드마크를 형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1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공사에는 392억 원이 소요되며, 2022년 완공하여 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광주광역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사업」 추진

2020. 02. 13.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저감, 자원순환, 도시공원 조성, 건강한 물관리 등 207개 사업에 2,47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22개에 445억 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13개에 39억 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사업」 29개에 321억 원, 「도심속 녹지 확충사업」 91개에 615억 원, 「건강한 물 환경 조성사업」 29개에 485억 원, 「친환경 하수 관리사업」 16개에 551억 원이 투입된다.

광주역 도시재생뉴딜 핵심 시설물 건축설계 공모작 선정

2020. 02. 26. | 광주광역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창업 및 중소

벤처산업 플랫폼으로 활용할 「스테이션G 건립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됐다. 당선작은 배치, 토지활용도, 내·외부 공간 계획, 입면 디자인 계획,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성 등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스테이션G’는 부지면적 5,500㎡에 지하 2층, 지상 7층 내외, 연면적 1만 1,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창업공간, 중소벤처기업 입주 공간, 회의실 등의 사무공간과 공동작업실, 휴게·편의시설 등의 지원 공간으로 구성된다.

▼ 광주역 ‘스테이션G’ 건립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 조감도



광주광역시, 획일적 아파트 디자인 없앤다.

2020. 03. 11.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을 정비한다. 내용은 ①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을 개선, ② 고층·고밀 병풍형 아파트 개선, ③ 단절되고 폐쇄된 아파트를 주변과 연결되도록 개선, ④ 안전, 무장애, 친환경 요소 개선 등이다. 한편 이 기준들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단지에 사업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디자인 등을 평가하여 건축위원회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할 경우, 각종 심의를 통합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2020년 신축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시

2020. 04. 05.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2020년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평가를 실시하는 공공건축물은 2020년에 착공 예정인 ‘하남지구 시립도서관’과 ‘북구

장애인 인권타운' 2곳으로, 지난 3월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한편 「인권영향평가」는 건물 개관 전 인권적 관점에서 이용자의 시설 접근권·휴게권·안전권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등을 평가하여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다.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건립 가이드라인 발간

2020. 04. 27.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총괄·공공건축가와 함께하는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절차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를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4단계 61개 업무로 세분화하여 절차별 근거자료, 담당 부서, 업무 내용, 검토사항,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협업 지원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특히, 세부 업무별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협업 지원 사항을 안내하여 민간전문가가 사업구상 및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다.

광주광역시, 소규모 재생사업 3곳 선정...도시재생 활성화

2020. 05. 21.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3곳이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동구 지원1동'은 무등산 국립공원 진입 관문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증심천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산2동'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산 이음길을 조성하는 등 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마을 브랜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북구에서 처음 선정된 '운암2동' 「에코(eco)-허브(hub) 운암마을 사업」은 친환경을 테마로 운암시장 일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광역시,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 추진

2020. 03. 03. | 울산광역시 | 도시재생과

시정 10대 핵심과제인 「울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하여, 2020년은 2개 사업이 추가되어 본격 추진된다. 추가 승인으로 신규로 진행하게 된 사업은 모두 '주거지 지원형' 사업으로 「다 함께 어울림 신정3동」과 「천(川) 걸음 이화정 마을」이다. 남구의 「다 함께 어울림 신정3동」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공·폐가로 방치된 건물을 매입해 '행복아이(i)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북구의 「천 걸음 이화정 마을」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거 밀집 지역에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민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40년 울산시장 관사 서민주택 등으로 탈바꿈”

2020. 04. 22. | 울산광역시 | 건축주택과

울산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노후된 공관어린이집(1980년에 건축되어 1996년 2월까지 울산시장 관사로 사용)을 철거하고 시민들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공서비스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복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시설물 철거 후 본격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1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건물은 지상 15층 규모로, 지상 1층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작은 도서관, 2~3층에는 공영주차장, 4~15층에는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 '공관어린이집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경관 및 공공공간

서울특별시, 낙후된 한강수변길 재생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2020. 01. 08. | 서울특별시 |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는 낙후된 한강대교 남단 수변공간을 재생해 '한강변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한강 코드(HANGANG CODE)」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강 코드(HANGANG CODE)」는 '바코드'를 콘셉트로 하여, 보도, 식재, 조명 등에 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적용해 한강변 보행네트워크를 하나의 선형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한강 코드(HANGANG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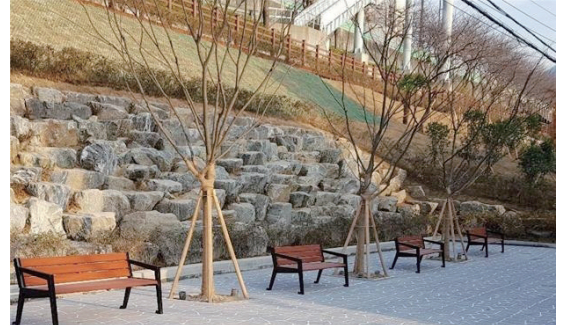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절감한 유료도로 통행료로 쌈지숲 조성

2020. 01. 15. | 부산광역시 | 공원운영과

부산광역시는 「쌈지숲 조성사업」에 2019년도에 절감한 설명절 통행료 16억 원을 투입하는 등 시민의 녹색 생활권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쌈지숲은 설계·시공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성한 곳으로, 현재 총 11곳 중 10곳이 조성 완료되었고, 나머지 1곳(서구 고분도리 쌈지숲)은 2020년 1월 말 조성 완료다. 한편 쌈지숲 중 7곳은 유료도로가 위치한 서부산권 중심으로 조성하였는데, 이는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충실한 사례이다.

▼ 사상구 주례기찻길 쌈지숲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낙동강하구,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2020. 02. 12. | 부산광역시 | 낙동강관리본부

부산광역시는 생태관광 활성화와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의 「생태관광지역 평가」 결과, 낙동강 하구가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낙동강 하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운영하면서, 철새 맞이 행사를 비롯해 카약·탐조·갯벌체험, 식물·곤충 관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와 더불어 쇠제비갈매기, 꼬리명주나비, 가시연, 새섬매자기 등의 서식지와 멸종위기종의 복원사업도 추진해오고 있다.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 드디어 시작된다!”

2020. 03. 10. | 부산광역시 | 사회통합과

부산광역시와 북구가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정비사업 부지 내 손실보상 협의를 마친 일부 건물, 그리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약 60m 길이의 낡은 아케이드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공공용지가 확보되면 동물 입양 카페, 동물 보건소, 동물 관련 자격증 교육이 가능한 '도심형 동물복지센터', '주민 쉼터'와 '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서면역에, 친환경 실내정원 들어서!

2020. 04. 24. | 부산광역시 | 공원운영과

현재 「서면역 실내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부산광역시 는 기존의 단순한 화분 및 녹화방식에서 탈피하고, 창의적이고 테마가 있는 최적의 설계안을 확보하기 위해 현상설계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면역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으로 지하도 이동 및 지하철 이용객의 환승을 위한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의 요충지이자 공공시설이다. 산업, 유통, 금융의 중심지로 부산광역시의 중심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곳에 실내정원을 조성할 경우,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 원도심 내 유수지 주민친화공간으로 거듭난다.

2020. 02. 18. | 인천광역시 | 시민안전본부 자연재난과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유수지 6개소에 대해 악취 해소 등 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유수지 내에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친화공간으로 거듭나는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남동1유수지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서식하는 환경친화적 친수공간으로, 삼산유수지는 그동안 원도심에 부족했던 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FEZ, 송도 6공구 매각대상 용지에 고품격 경관 조성

2020. 05. 18. | 인천광역시 |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 개발계획총괄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3개 블록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경관 향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물 평균 높이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층수 높낮이가 다양해 집에 따라 통풍확 확보가 가능하고, 수변 공간과도 잘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1년도에는 수변 경관 향상과 독보적인 정체성 확보를 위해 송도 워터프런트와 어울리는 동시에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상업 시설 및 주거가 잘 접목된 단지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속도낸다.

2019. 12. 23.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심에 자리 잡은 황룡강 장록습지에 대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여부가 1년 2개월의 논란 끝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장록습지는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도심 속에 위치한 국가습지보호지역이 될 예정이다.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훼손된 지역의 복원도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장록습지는 도시환경 문제를 제어하는 환경조절 기능과 물 순환 기능이 개선되는 등 생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놀이터에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2020. 03. 29.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가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제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에 정책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책권고 주요 내용은 2020년도 시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어린이공원 개선사업에 단차 없는 보행접근로 확보 및 무장애 통합 놀이기구 1종 이상 설치, 향후 광주시 어린이공원 및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및 신규 조성 시에도 적용,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모든 어린이공원에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중장기 과제로 광주에 대표적인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등이다.

‘전일빌딩 245’, 시민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

2020. 05. 11.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전일빌딩 245’ 다목적 강당에서 개관 기념식을 갖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 출발을 알렸다. ‘전일빌딩 245’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디지털정보도서관, 남도관광센터, 전일생활문화센터, 시민갤러리, 전일 아카이브, 중소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문화공간 ‘시민 플라자’, 지상 5층

부터 7층은 문화콘텐츠 창작기업 입주공간인 ‘광주 콘텐츠 허브’, 지상 9~10층은 5·18 기념공간인 ‘19800518’, 지상 8층과 옥상은 광주 도심과 무등산을 조망하기 좋은 ‘전망 및 휴게공간’ 겸 ‘소규모 이벤트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광역시, 도심 내 훼손지역 생태 휴식공간으로 조성

2020. 02. 14. | 대전광역시 | 기후환경정책과

대전광역시는 환경부 「2020년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에 「동구 가오근린공원 내 도심형 생태플랫폼 조성사업」과 「서구 구봉산 가장자리 숲 치유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동구 가오근린공원 내 도심형 생태플랫폼 조성사업」은 생태숲을 복원하고 비점오염 저감 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서구 구봉산 가장자리 숲 치유사업」은 생물 서식지를 복원해 자연치유 공간과 생태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 「시민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 본격 추진

2020. 04. 06. | 대전광역시 | 공동체정책과

대전광역시가 「시민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2019년도에 조성된 공유 부엌, 마을 카페, 마을 공방, 마을 학교 등 11곳의 시민 공유공간은 지역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번에는 주민자치형 및 공공형(공공시설 유휴공간), 빈집정비를 통한 주민 공간 등 마을 공간의 유형을 다양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태화강 국가정원 ‘2019 한국관광의 별’ 선정

2019. 12. 10. | 울산광역시 | 관광진흥과

울산광역시는 ‘2019 한국관광의 별’ 선정에서 ‘태화강 국가정원’이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생태, 대나무, 무궁화, 계절, 물, 시민 참여 등 6개 주제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간 경관 사업 및 통합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은하수 길 조성 및 봄꽃 대향연, 대숲 납량 축제, 가을 국향, 떼까마귀 군무 등 4계절

축제가 개최된다. 특히 태화강 국가정원은 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복원되어 마침내 국민의 정원으로 다시 태어난 곳으로, 우리나라 대표 관광명소를 선정하는 ‘한국관광의 별’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림청 주관 정원드림 프로젝트 사업 울산 5곳 선정

2020. 02. 26. | 울산광역시 | 생태정원과

울산광역시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정원 분야 정원드림 프로젝트 사업」에 5곳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정원 분야 정원드림 프로젝트 사업」은 도심 속 소규모 유휴 부지를 정원 분야 취업·창업자의 실험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팀은 지정된 사업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정원 디자인과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정원을 조성하면 된다. 대상지는 총 4개 유형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물 옥외공간’, 교각 하부 등 나대지, 골목길, 폐선, 천변 등의 ‘선형 공간’, 공공기관 옥상, 육교, 계단, 벽 등의 ‘입체형 공간’, 그 밖에 도심지 내 버려진 공간 등이다.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정원도시 조성

2020. 05. 19. | 울산광역시 | 생태정원과

울산광역시는 「정원문화·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흥계획은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정원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시민의 삶 속에서 정원의 생활화 실현, 정원문화 산업 기반 구축과 정원 관광 자원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정원 인프라 확충(7개 과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3개 과제), 정원산업 기반 구축(4개 과제) 등 3대 전략에 14개 과제로 수립되었다.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나선다!

2020. 02. 04. | 부산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부산광역시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부산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마을공동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소재지 관할 구·군 해당 부서에서 받는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사업별 최대 7백만 원 내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제안서를 대상으로 신청서 및 현지 조사, 심사를 거친 뒤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이후 선정된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문화이음 사업」 참여자 모집

2020. 02. 07. | 부산광역시 | 문화예술과

부산광역시는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 「우리동네 문화이음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 비영리법인(단체)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만 39세 이하 문화 분야 활동 경력을 보유한 청년이다. 지원분야는 서비스 기획, 서비스·문화 공간 등 운영관리, 홍보마케팅, 기타 등 4개 분야이다.

시민 주도 저탄소 마을로 생활 속 온실가스 “0”

2020. 02. 18. | 부산광역시 | 기후대기과

부산광역시가 「2020년 부산형 저탄소 마을 사업」의 참가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마을에 선정되면 3년간 저탄소 생활 실천 사업을 위한 보조금과 마을활동가의 지원을 받는다. 1년 차에는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 및 기후변화 교육, 가구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주민 인식 변화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2년 차에는 건물의 단열, 보일러 청소, 절수설비, 고효율 조명 교체 등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3년 차에는 주택 미니 태양광 및 빗물 저금통 설치, 나무 심기 등 탄소상쇄를 통한 탄소 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살기 좋은 더불어 마을로 성장

2020. 02. 06. | 인천광역시 | 주택복지국 주거재생과

인천광역시는 ‘희망지 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천형 도시재생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희망지 사업의 핵심은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직접 참여한다는데 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원도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에 희망을 불어넣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9개 군·구가 사업을 제안하였고, 제안된 내용 중 자치군·구의 검토를 거친 희망지 사업 14개소가 최종 접수되었다.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 성공, 원도심 집수리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앞장선다.

2020. 03. 25. | 인천광역시 | 주택복지국 주거재생과

인천광역시가 노후화된 원도심 저층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을 24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원도심 활성화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도배, 장판, 싱크대, 창호, 난방, 보일러 등의 집수리지원, 일반주민들이 자력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집수리 교육 및 공구 대여, 직장인을 위한 택배 보관소 운영, 그밖에 꽃길 조성 및 담장 허물기와 같은 마을 주거환경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시비와 군(구)비를 5:5 비율로 나누어 자치구에서 운영한다.

광주광역시,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마을 e 척척’ 최우수상 수상

2019. 12. 16.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2019 디지털 사회혁신 우수사례」에서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마을 e 척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로 지역격차 허물기 공모(지역격차완화사업)」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마을 e 척척’은 광주광역시가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준비를 위해 공모 선정한 12개 협치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협치 마을 사업과 연계해 골목길 쓰레기 문제, 도로변 쉼 의자 배치 문제, 대형 불법 주차차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 성과를 반영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2020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사업」 본격 추진

2020. 02. 14. | 대전광역시 | 공동체정책과

대전광역시는 「2020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 공동체 마을계획 수립사업」은 마을 ‘의제 발굴 마을조사 마을계획 마을총회 실행 및 평가’를 진행해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주민자치역량과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해 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2019년도에 18개 동에서 마을계획 수립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9,000여 명의 주민참여와 200여 개의 의제 발굴이 이뤄졌다. 또한 후속 사업으로 「2020년 주민참여 예산제」 13개 동, 「마을 리빙랩 사업」 5개 동, 「소규모 공동체 지원사업」 3개 동 등이 추진됐다.

대전광역시 자치구 「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사업 순항 중

2020. 03. 11. | 대전광역시 | 공동체정책과

대전광역시가 자치구별 공동체 중간 활동 거점공간으로 조성 중인 「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순항 중이다. 자치구별 「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설립비 등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 2020년까지 3개 구에 조성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2곳을 더 조성해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자치구 공동체 지원센터는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주민, 마을활동가,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하며,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마을공동체 향상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사라지는 마을을 기록하다’ 대전광역시 「도시기억 프로젝트」 순항

2020. 04. 13. | 대전광역시 | 문화유산과

대전광역시가 「도시기억 프로젝트」의 2020년도 사업에 착수했다. 2019년도 중구 목동과 선화동 재개발지역 조사를 시행한 데 이어, 2020년도에는 사업대상지로 대전 역세권 재정비구역에 포함된 소재동과 삼성동 일원을 선정했다. 「도시기억 프로젝트」는 해당 지역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야심 찬 기획을 담은 프로젝트로, 건축물과 골목, 오래된 전봇대, 맨홀 뚜껑 등 마을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물리적, 경관적 요소들은 물론이고, 곧 그곳을 떠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 2020년 ‘도시기억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공공시설물 및 매체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정책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2020. 02. 14.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서울특별시가 ‘서울건축자산 정책브랜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개발한 건축자산 정책브랜드는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는 건축자산의 창의적인 활용·재생, 이를 시민들이 공감하고 즐기는 가운데 서울이라는 도시 가치가 향상되는 사례를 통해, 이것들이 미래에도 유효한 도시재생 자산임을 보여준다.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관련 전시·포럼·행사 운영 및 문화상품 제작 등 다양한 형태로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건축자산의 새로운 시선’ 전시 등 정책브랜드 활용사례



부산광역시,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한다!

2019. 12. 18. | 부산광역시 | 김기중은부산추진단

부산광역시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에 발맞춰 어린이의 보행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신호위반 무인 단속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2020년에는 초등학교 96곳에(사업비 41억 원) 설치를 완료하고, 연차별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주변(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 횡단보도)의 신호등 미설치 구간까지 신호등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확~! 바꾼다.

2020. 04. 14. | 인천광역시 | 주택복지국 도시경관과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 보고회에서는 표준디자인 재정비 방안과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인증 품목에는 가로등, 불라드, 보행자 펜스, 보안등, 보도블록, 벤치, 맨홀, 교량용 펜스, 가로화분대, 가로수 보호 덮개,

통합지주, 파고라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인증제품은 3년 동안 인증 사용 권한을 부여받으며, 인증 기간 만료 후 재인증을 통한 인증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디자인심의 면제 및 제품 홍보 등 인센티브를 얻는다. 인증제품에는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우수디자인 공공시설물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로고 디자인 공개

2020. 04. 19. | 광주광역시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박물관의 정체성을 담은 로고디자인을 공개했다. 박물관 로고 디자인(MI·Museum Identity)은 박물관의 철학과 의미를 담아 건축물을 라인 그래픽으로 형상화했다. 3개의 기둥은 박물관의 굳건한 중심축을, 2개의 평행선은 광주의 역사와 민속을, 5개의 점은 문화의 흐름과 소통을 상징한다. 또한 전용 서체로 정의와 나눔, 평화를 지향하는 광주 사람들의 따스함을 모티브로 개발된 ‘빛고을광주체’를 활용해, 새로운 박물관 명칭에 광주의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했다.

▼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로고 디자인



광주광역시 버스정류소에 광주다움 입힌다.

2020. 05. 06.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은 도시 근교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이용이 낮아 버스 표지판만 세워진 정류소, 지붕이 부식되고 파손된 정류소, 노후화된 벽돌형 정류소 등 23곳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는 버스정류소 개선과 함께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BIT) 확대 보급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연간 이용자

수가 많은 정류소, 노선 수가 많은 정류소, 민원이 많은 정류소 등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를 추가해 연말까지 전체 정류소의 40% 수준까지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 광주광역시「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공공시설물 정비

2020. 01. 28.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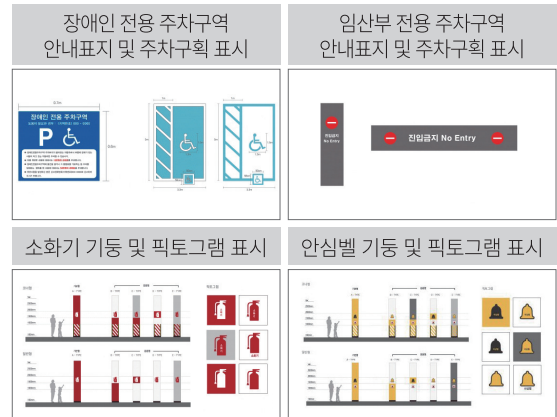
대전광역시는 ‘2019~2021 대전 방문의 해’ 대비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노후·파손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정비를 완료했다. 이번에 정비한 시설은 볼라드, 교통신호 표지판, 중앙분리대, 차선규제봉,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화단 경계석 등 노후·파손된 6,708곳의 공공시설물이다. 이는 2019년 상반기에 정비한 4,922곳에 비해 27% 증가한 실적이다.

대전광역시, ‘건축물 안내표지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2020. 03. 26.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가 건축물 공용공간에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은 무질서하게 표기됐던 건축물 안내표지를 개선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공용공간인 주차장과 내부공간의 안내표지를 공간별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에 공통으로 표시되는 장애인 및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차량 운전자가 출구로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할 위험이 있는 출구 진입금지 표시, 소화기와 비상벨 위치표시 등에 대한 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건축물 안내표지 가이드라인



대전광역시, 안전 위협 노후간판 일제조사 정비

2020. 04. 03.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에 취약한 간판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비 대상은 사업장 폐쇄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 노후가 심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간판, 도로변에 주인 없이 방치된 지주 이용 간판 등이다. 대전광역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주인이 있는 노후 간판의 경우에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주인이 없는 노후 간판은 건물주(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로 보행 안전 확보

2020. 12. 23. | 울산광역시 | 교통기획과

울산광역시가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를 설치해 운송에 들어갔다. 설치된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엘이디(LED) 전광판,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 확보를 위한 음성 방송 장비, 고효율 엘이디(LED) 투광등이 설치되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야간 시인성을 높였다. 또한 보행자의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교차로의 교통신호등 지지대 및 신호등 전체를 노란색으로 교체했다.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건축 및 도시

주민과 함께하는 「천안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순항

2019. 12. 02.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가 「남산지구 공원 조성계획 및 설계용역」과 「어르신 일자리 복지문화센터 설계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남산공원’, ‘천안천 어린이공원’, ‘어르신 일자리 복지문화센터’ 등을 2020년 착공·마무리하기로 했다. 「남산지구 공원 조성계획」은 새롭게 시작된 사업으로 접근로를 개선하고 공원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천안천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과 도시 텃밭, 광장 등을 설치하게 된다. 그리고 원성천변 보행로와 연결될 예정이어서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어르신 일자리 복지문화센터’가 조성되면 어르신 일자리센터, 건강 관리관, 공유 부엌, 지역주민 카페, 다목적실, 옥상 텃밭 등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남산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안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충청남도 ‘최우수’

2019. 12. 10. | 천안시 | 건축디자인과

천안시는 「2019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9년 건축행정 건실화 자료 7개 항목 16개 지표 중 ‘건축심의 결과 공개’와 ‘민원 처리기간 준수’ 등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이 밖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의 건축정책 이행도, 공사 중단 건축물 공사 재개·철거 정비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천안역세권 활력 거점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착공

2019. 12. 26.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착공식」과 도시재생 뉴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 체험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는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건물로 1층~3층에는 지역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의로 분야를 공동 연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교육·연구시설이, 4층~5층에는 청년과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4층~18층에 조성되는 행복주택에는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와 청년 창업자 등이 입주하게 돼 직주근접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어울림센터 인접 부지에 조성되는 도시재생 뉴딜 체험관은 지역주민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이해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감도



천안시, 법정 문화도시 지정

2019. 12. 31. | 천안시 | 문화관광과

천안시가 「제1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천안 문화도시 사업」은 ‘시민의 문화 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을 비전으로 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취향을 발견하고 실천하여 문화 생태계를 조성함은 물론, 더 나아가 그것을 발신하는 링크(LINK)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천안시는 5년 동안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누구나 의지가 있으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문화적 소외계층이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실행 주체가 될 수 있는 도시, 곳곳의 문화공간을 연결해 문화를 확장시키는 도시가 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안시 서북구,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호응

2020. 01. 13. | 천안시 | 서북구건축과

천안시 서북구는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도면을 무료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서북구에서는 농막을 비롯한 임시창고·임시사무실 등 가설건축물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평면도 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주고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등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로 설계 대행 시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연간 5,000여만 원)은 물론 도면작성에 걸리는 시간적 부담까지 말끔히 해소할 수 있어 민원 만족도를 높였다.

천안시 청년물·두드림센터 지자체들 벤치마킹 발길

2020. 01. 17.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 청년물 ‘홍홍발전소’와 ‘도시창조두드림센터’에 벤치마킹을 위한 전국 지자체의 문의와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두드림센터, 특화거리, 청년물, 동남구청사 복합개발 등 거점 인프라를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끌어들이 원도심의 소통과 활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다양한 기관이 입주한 ‘두드림센터’, 청년 상인들이 창업 중인 ‘청년물’은 원도심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천안시, 건축 민원 무료상담실 운영

2020. 02. 18. 천안시/건축디자인과

천안시는 시민에게 다가서는 건축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천안지역 건축사회와 협력해 ‘건축행위 시 건축 관계 법령이나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밖에도 매달 네 번째 화요일에는 원거리 먼 지역 거주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7개 면을 방문해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천안시, 시청사 내부에 실내정원 조성

2020. 03. 16. | 천안시 | 공원녹지과

천안시가 시청사 내부에 실내정원을 조성한다. 시청사 내 1층 로비와 도솔 쉼터(버즈), 민원실 내 벽면녹화, 기둥 녹화 등 약 800㎡ 면적에 대규모 실내정원을 조성하고, 벽면에는 빔 조명 프로젝터를 설치해 다양한 테마의 조명, 이미지, 그림 등을 연출할 계획이다. 또한 도솔 쉼터 앞 기둥과 천장부에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를 테마로 뿔어나가는 나무 이미지를 연출할 예정이어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살아있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쾌적한 환경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2020. 03. 27. | 천안시 | 기업지원과

천안시 ‘천안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된다. 천안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부서) 협의,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고시됐다. 산업단지는 산업, 연구,

업무, 상업 등의 복합 공간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직산 역세권 일대는 향후 정보통신기술(ICT)과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산업 등 첨단 업종을 직접화한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이자 맞춤형 산업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천안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어르신 일자리 복지문화센터 착공

2020. 04. 27.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는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 핵심 거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르신 일자리 복지문화센터’ 조성 공사를 4월에 시작했다고 밝혔다. 어르신 일자리 복지문화센터는 사적동 일대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남산지구는 원도심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의 매력적인 공간 창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공공서비스 기반 구축, 고령 친화 마을, 주민 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회복 등을 비전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어르신 일자리 복지문화센터’는 천안 시니어클럽, 도시농업지원센터, 보건소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공동작업장, 어르신 커뮤니티 카페, 헬스케어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에게 일자리, 문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어르신 일자리 복지문화센터’ 조감도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속도

2020. 05. 15.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가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2020년 말 착공을 목표로 혁신

지구에 2024년까지 총 1,886억 원을 투입해 천안역 연결 복합환승센터, 지식산업센터, 생활 SOC, 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천안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및 참여 계획에 대한 이해관계 조율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최근 이해관계 조정이 마무리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식산업센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와 상업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약속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주시, ‘예비 문화도시’ 선정...문화도시 도약 발판 마련

2019. 12. 31. | 공주시

공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2차 예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받아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다. 공주시는 ‘안녕! 이야기 문화도시 공주’를 비전으로, 공주의 시선, 공주 이야기 포럼 등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5년간 진행되는 7개 분야의 16개 사업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하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최종 발표 등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2020년 말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제2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게 된다.

공주시, 「2020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2020. 01. 02. | 공주시

공주시가 농촌 지역 활성화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020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 사업량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축 등 60동, 농촌 빈집정비사업 6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124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21동,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16동 등 5개 분야 총 281동이다.

공주시, 2020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본격 추진

2020. 01. 15. | 공주시

공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성 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달성을 위해 13개 세부 사업 과제를 발굴하고 5년에 걸쳐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지역 맞춤형 창업 지원, 성평등 인형극단 운영, 여성친화 지역 맞춤형 취업 지도 훈련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안심하고 살아가 수 있는 주거지역 조성, 이주여성 공주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여성 역사 인물 기념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시민 참여단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공주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 안전도시로 거듭난다!

2020. 02. 06. | 공주시

공주시가 ‘국제안전도시 회원도시’로서의 자격을 공식 선포했다. 공주시의 이번 ‘국제안전도시 회원도시’ 인증은 국내에서 20번째로, 지난 2016년 ‘안전도시 육성 조례 제정’을 비롯해 안전도시 위원회와 산하 5개 분과를 구성하였으며, 재난 안전, 교통안전, 자살 예방 등 6개 분야 265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왔다. 이번 공인 선포를 계기로 ‘중장기 안전도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안전 증진 시책을 개발하는 한편, 시민 주도형 안전도시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주시,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2020. 03. 12. | 공주시

공주시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지원 서비스는 주택관리공단이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능력을 전파·공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주택관리공단 및 공주시 담당자가 공동주택을 방문해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서 수립을 지원하며, 건축·토목·기계(난방)·전기·소방·승강기 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공주시,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궤도... 주거환경 개선 박차

2020. 04. 21. | 공주시

공주시는 옥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0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주거지 지원형’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노후 주택개량,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옥룡동 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많아 「집수리 지원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수요조사에 이어 지난 3월 신청자 모집을 완료했다. 공주시는 집수리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30세대를 대상 가구로 선정한 뒤, 2020년 안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령시, 2020년 ‘찾아가는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

2020. 03. 03. | 보령시

보령시는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무료 건축상담실은 건축 민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데다, 경제적·시간적인 이유로 설계사무소 방문을 주저하는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주택 설계 및 인·허가 등의 건축 행정 절차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및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노후주택 증·개축 등이다.

아산시, 「2020년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추진

2020. 01. 10. | 아산시

아산시가 「2020년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청소년 탈선장소로의 악용,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지역 빈집정비에 나선다. 아산시는 2020년에도 주거환경과 경관 개선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시지역 환경개선사업 철거비 전액을 무상 지원할 예정이며, 3년간 주차장, 쌈지공원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2020. 05. 13. | 아산시

아산시가 2025년도까지 27개소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5 아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한 브리핑도 진행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30 아산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목표연도에 따라 검토하는 계획으로, 기본계획상 3단계인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인구 배분 계획에 부합한 도시용지 및 기반시설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인구 50만의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3개 분야의 ‘공공건축물 내실화 역점분야’에 대한 브리핑도 진행했다. 「2020년 아산시 공공건축사업」은 총 42개 사업으로, 문화시설 ‘모산역 문화플랫폼’, 체육시설 ‘배방 체육관’, 복지시설 ‘육아 종합지원센터’, 청사시설 ‘배방 신도시 민원행정센터’, 생활여가시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등에 대한 증축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외에 주차타워 사업도 진행 중이다.

논산시, 「2020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2020. 01. 08. | 논산시

논산시가 「2020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총 3개 분야로 「주택개량사업」 70동, 「빈집정비사업」 33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326동 등 429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촌지역 내 농촌주민 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해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농협을 통해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경우 지붕 또는 벽체의 슬레이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344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및 소규모 비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옛 청사 활용, 당진처럼 하면 된다.

2019. 12. 02. | 당진시

당진시가 원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옛 군청사 별관 건물을 시민들을 위한 취업과 창업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주목 받고 있다. 충청남도과 세종특별자치시 최초로 옛 군청사를 활용해 개소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바로 그것이다. 옛 당진 군청사인 중장년 창업기술센터의 제1별관에는 취업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 나래’가 2017년 개관했으며, 2019년 11월부터는 제2별관 1층에서 당진시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당진시는 44억 원을 투입, 청년센터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 청년들을 위한 전용 공간인 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 타운’도 조성하고 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시제품 개발에서부터 사업과 판로개척, 기업 성장까지 창업의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것처럼, 청년 타운에서도 청년들이 시제품 개발과 생산, 홍보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당진시, 위반건축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020. 01. 16. | 당진시

당진시가 ‘위반건축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위반건축물 종합관리시스템은 위반건축물 관리, 상담 내역 및 이력 관리, 이행강제금 산출식 지수 관리, 통계관리 및 건축물대장 연계 등의 기능을 갖추어 위반건축물 적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당진시는 2019년 9월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여러 차례의 테스트를 거쳤으며,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스템 개발로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당진시「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신청 접수

2020. 02. 04. | 당진시

당진시가 「202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민 공동 이용시설인 단지 내 보도블록 교체,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에 대한 설치·보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 주체가 지원 신청해야 한다.

당진시,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정책 선도

2020. 03. 06. | 당진시

당진시가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을 최대 50%까지 상향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친환경에너지 전환 선도 도시’로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기존인 3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 적용하고,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 용도나 대지 여건, 경관 등을 감안해 의무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1천㎡ 미만 비의무대상 공공건축물에도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여군, 충청남도종합관광안내소 새 단장

2019. 12. 31. | 부여군

부여군은 충청남도종합관광안내소의 리모델링 작업을 마치고 2020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종합관광안내소는 오래된 내·외관을 정비했으며, 관광객 심터를 트래블라운지로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출입구 4개소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신설하여 방문객 편의 증대를 위한 진입로 휴게 데크를 조성했다.

부여군, 2020년「주거환경 개선사업」확대 지원

2020. 01. 10. | 부여군

부여군은 1월부터 「2020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신청자를 접수한다. 먼저 「빈집 정비사업」은

가구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60가구로 늘려서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182동에서 총 295동으로 2배 가까이 확대 지원한다. 한편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그동안 제외되었던 비주택에 대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최대 17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총 32동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개량비용으로 슬레이트 철거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부여군 공동주택 지원사업」대폭 확대

2020. 02. 03. | 부여군

부여군은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 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시설물이다. 세부대상은 단지 내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도로 및 보안등, 상하수도, 범죄예방 목적의 CCTV 유지보수 등의 시설물이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부여군 도시건축과 주택팀으로 제출하면 되며, 주무부서에서 현지조사 후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부여군·공주시,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모사업」 최종 선정

2020. 02. 19. | 부여군

국토교통부는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연계한 「스마트 백제길(부여군·공주시) 조성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본 사업은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연계한 ‘스마트 백제길’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관광객 대상 그룹형 음성 가이드 서비스, 증강현실(AR) 기반 백제 타임머신, 야간 체험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의 개발·보급, 유모차, 휠체어, 스마트 보관함, 전기자전거 등 편의품 공유·대여 서비스, 주차장 현황 공유 서비스, 스마트

주차 예약 서비스 등을 통해 여행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을 제안하였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 백제길’ 내 IOT 인프라를 통해 수집된 관광 데이터의 통합 관리, 서비스 운영현황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발전과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지닌 조성 계획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여군,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 본격 착수

2020. 04. 27. | 부여군

부여군은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단계별 개발을 통해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게 되며, 문화·휴식·교육 기능이 어우러진 군민의 여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도서관은 일반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 등 정보수집과 학습이라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과 함께, 북카페, 강의실, 수련 활동장, 휴게실 등을 더해 어린이와 청소년, 지역 주민 누구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또한 생활문화센터에는 음악 연습실, 공방 등 문화강좌 공간과 함께 공동육아나눔터, 다 함께 돌봄센터를 두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으로 이전을 준비 중인 부여여자고등학교와 인근의 부여고등학교를 연계해 문화와 교육,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종합타운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청양군, 새 랜드마크 ‘매운 고추 체험나라’ 본격 조성

2020. 01. 02. | 청양군

청양군이 목재문화 자연사 체험관으로 유명한 대치면 광대리 구기자 타운 안에 새로운 랜드마크 시설 ‘매운 고추 체험나라’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총 6층 규모로 건축 예정인 ‘매운 고추 체험나라’는 360° 회전형 하늘타워(전망대) 등 칠갑호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청양고추가 상징하는 각종 매운 음식을 특화하고, 가족형·체류형 체험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차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청양군, 주민 뜻 모아 ‘가족문화센터’ 조성

2020. 02. 05. | 청양군

청양군이 가족문화센터 조성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군민들의 희망사항을 폭넓게 모으고 있다. 청양군은 가족문화센터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 타 지자체 우수시설, 시설별 공간배치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부지 매입 현황, 주차장 및 인적자원 확보 방안, 주민설명회 추가 개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가족문화센터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복합 복지공간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가족문화센터에 들어설 주요 시설은 키즈카페, 육아 돌봄 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이고, 주요 기능은 육아 나눔, 자녀 돌봄, 청년·가족 및 공동체 활동 지원이다.

홍성군 「오관지구 개발사업」 쾌속 질주!

2019. 12. 06. | 홍성군

홍성군은 오관지구 내 각종 개발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며 원도심 내 균형발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먼저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홍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관리 477-1번지 일원 총면적 4만 8천 388㎡에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오관리 개발의 기본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이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남문동 도시재생사업」도 2021년까지 마무리해 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원, 주차장 등 주민 생활 인프라 조성은 물론이고,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청년 창업공간, 청년 임대주택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년 유입의 발판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통합 협치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위해 839억 원 분다

2020. 02. 10. | 홍성군

홍성군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839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터미널 이전 등으로 골목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구) 홍고통을 중심으로 한 「오관 2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토지보상비 20억 원을 2020년 예산에 편성했다. 또한 구항면 오봉리 일원의 주민 복지시설 및 경관개선에 나서며, 문화복지행복센터 조성, 중심 가로수 정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집중 전개할 계획이다. 홍성군은 읍·면별 특색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 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다운 지구 새마을사업」을 2022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홍성역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홍동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편성했으며, 2개 구간 「한전 지중화 사업」, 홍성 소항 삼거리 및 광천 소암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편성해 도심의 교통환경 개선에 나선다.

홍성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개 지구 최종 선정

2020. 03. 10. | 홍성군

홍성군은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내 재해·위생·안전 등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서부면 신리, 장곡면 도산2리 2개 지구는 지붕 개량과 담장 정비, 마을 안길 정비, 상하수도 개선, 노인 돌봄 사업 등에 3년간 최대 3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홍성군, 살기 좋은 명품 홍성 만들기 속도

2020. 04. 22. | 홍성군

홍성군이 명품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충청남도 수부도시의 위상을 확실히 다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발전의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홍성군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2040 홍성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여건에 순응하기 위해 50만㎡ 면적의 농림지역의 관리지역 전환을 골자로 하는 「홍성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2021년까지 마무리한다. 한편 홍성읍, 광천읍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140억 원의 예산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서산 힐링 숲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30억 원 규모 「광천읍 대평리 일원 잇슈 창고 조성사업」, 2021년 공모 예정인 광천읍 신진리 일원 한국 K-POP고등학교 내 생활 주거 센터 및 거주지 주차장 조성을 주 사업 내용으로 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광천읍을 남부권 최대 문화, 레저, 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홍성군, 충청남도 '유일' 「국가균형발전대상」 수상 쾌거!

2020. 05. 19. | 홍성군

홍성군은 충청남도내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가균형발전대상」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홍성군은 지역혁신사례, 생활 SOC 사업, 홍성 마을공동체, 지역발전 투자협약 등 균형발전 사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예산군,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생활권 지도 달라지다!

2019. 12. 11. | 예산군

예산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예산읍 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생활권 지도를 새롭게 쓰고 있다. 먼저 ① 읍내 권역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일생을 행복하게 동행(同行)하는 예산」(주거지 지원형)」에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예산을 예산리 600 일원에 옛 군청사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립하며, 주거복지 환경 조성 및 지역 자산 활용, 창업 인큐베이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안전안심 골목길의 생활편의시설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생활기반을 구축한다. ② 역전권역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형’에 선정돼 예산읍 주교1리 일원 부지에 2021년까지 3년간 주거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③ 신례원 권역은 창소리에 4개 동,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353세대를 건설하다 공사가 중단되었던 ‘예산 이고센아파트’가 「국토교통부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020년도부터 본격적인 정비모델 수립 및 사업 추진을 통해 예산 이고센아파트를 서민형 공동주택으로 조성하게 된다.

예산군, 2020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2020. 01. 30. | 예산군

예산군이 「2020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은 총 5개 분야의 「농촌 주택 개량사업」 75동, 「빈집 정비사업」 7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105동, 「슬레이트 처리사업(소규모 비주택)」 15동, 「농촌 주택 지붕 개량사업」 9동 등이다. 「농촌 주택 개량사업」은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연면적 150㎡ 이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협회를 통해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과 주택에 부속하는 건축물, 소규모 비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이다. 「지붕 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신청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예산군, 빈집 재생(활용) 사업 추진

2020. 02. 05. | 예산군

예산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빈집 재생(활용) 사업」을 추진

한다. 「빈집 재생(활용) 사업」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과 별개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함께 써유」 사업과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으로 진행된다. 「함께 써유」 사업은 도시지역 내 방치된 빈집이 철거된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동의자에게 1개 동 최대 1,5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또한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취약계층에게 무상 임대(4년)하는 사업으로 동의자에게 1개 동 최대 2,000만 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예산군, 「신(新) 활력 창작소 조성사업」 착공

2020. 05. 06. | 예산군

예산군이 옛 보건소 건물을 청년 창업지원과 평생학습공간인 ‘신(新) 활력 창작소’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新) 활력 창작소 조성사업」은 옛 보건소 건물을 활용해 청년들의 창업 인큐베이팅과 함께 다양한 평생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상 4층 규모의 옛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1층은 주민 담소방, 2층은 카페, 갤러리, 요리 실습장, 공동작업장, 3층은 창업연구소, 청소년 동아리실, 창업 세어오피스, 4층은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2021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예산군 「신(新) 활력 창작소 조성사업」 조감도



예산군, 온누리 예산놀이터 개소

2020. 05. 18. | 예산군

예산군이 「온누리 예산놀이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온누리 예산놀이터’ 1층에 자리한 온누리 카페에서는 식음료와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게 되며, 이유식, 간식 등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조리실도 개방한다. 유아 학습터에서는 문화 및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층의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건물 앞마당에서는 무박 캠핑, 벼룩시장, 전래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온누리 예산놀이터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2019. 12. 09. | 태안군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2019년 제3차 수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 센터’는 국·도비 121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32억 원을 들여 태안을 동문리 일원에 6,103㎡ 규모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과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전시·체험·교육 ‘놀이를 즐기다’, 보육·보건 ‘아이를 감싸 안다’, 육외 놀이체험·탐험 ‘자연과 함께 크다’라는 기본 방향을 토대로,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회복하는 놀이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태안군, 광개토 대사업 동력 얻었다!

2019. 12. 11. | 태안군

태안군이 역점 추진 중인 「광개토 대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태안군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된 ‘태안 지역 핵심전략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의 노력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태안군에 따르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광개토 대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 11건이 대거 포함되었다. 「광개토 대사업」의 대표 사업인 ‘국도 38호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이 태안 북부권의 발전을 이끌고, 대산과 당진을 넘어 경기권을 단숨에 연결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연륙교가 연결되면 반도라는 한계를 넘어 목포에서 인천, 그리고 개성을 잇는 ‘서해안 스마트 하이웨이’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태안군, 재난·재해·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020. 02. 14. | 태안군

태안군이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프로그램 표준을 바탕으로 정보 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로 인근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업무 공조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한 통합 분석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①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어린이 보호·재난 안전·시설물 관리 관제가 가능해진다. ② 관제 업무 중 사건·사고 발생 시 메인화면 표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태안화력 주변 환경변화 감시 IoT 센서와 연계하게 된다. ③ 태안경찰서·태안 해양경찰서 영상공유시스템 연계가 가능해지며, ④ 112 센터 긴급 영상 지원, 112·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 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가 기본 5대 연계 서비스로 추진된다.

태안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빈집 활용도 높인다!’

2020. 02. 21. | 태안군

태안군은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과 손잡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시해,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상수도 사용량·무허가 건축물 등을 확인해 빈집으로 추정했으며, 5월까지 빈집 추정 가구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구조, 건물 외관 등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 빈집을 최종 확정한다. 또한 확정된 빈집에 대해서는 ‘현 상태 또는 수선을 통해 즉시 사용 가능한 1등급’, ‘수선을 통해 사용 가능한 2등급’,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사용 가능한 3등급’, ‘철거 후 신축의 효용이 더 큰 4등급’ 등으로 구분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경관 및 공공공간

천안시, 주민 중심의 ‘주민 동아리 커뮤니티 공간’ 개소

2019. 12. 05. | 천안시 | 자치민원과

천안시가 생활권 중심의 주민 동아리를 위한 공간인 ‘공간해유’를 개소했다. ‘공간해유’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 동아리 모임·회의실과 공연동아리 연습공간을 갖춰 주민 동아리 회원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주민 동아리 모임 외에도 인근 주민들의 활동공간으로서 시민 동아리 모임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시 유통단지공원, 주민 건강과 생태교육 행거요.

2020. 01. 02. | 천안시 | 공원녹지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조성된 ‘유통단지공원’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통단지공원은 생태통로와 생물 서식처 복원 공간, 놀이시설, 휴식공간 등을 갖춰 주민 건강을 증진하는 녹지와 휴식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도로변 숲 입구에는 산벚나무, 자귀나무, 때죽나무 등 조경수가 자리 잡아 잡풀로 지저분했던 공간이 깨끗이 정비됐으며, 생태탐방로 주변에는 붓꽃, 노루오줌, 애기원추리 등 다양한 꽃이 심어져 생태학습공간으로 조성됐다. 또한 숲속에는 인공둥지, 새집 먹이대, 곤충 호텔 등이 설치돼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고, 시민들이 편하게 공원에서 쉴 수 있는 평상, 나무 의자, 정자 등도 확충돼 만족도를 높였다.

천안시, 스마트폰 대신 ‘숲에서 놀자’ 유아숲체험원으로 오세요!

2020. 01. 09. | 천안시 | 산림휴양과

천안시는 시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아 숲 체험원’ 4개소 조성을 완료해, 그중 2개소를 우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태학산 유아 숲 체험원 조성을 시작으로 2019년 말에는 청당2공원, 불당2공원, 불당동유적공원에 3개소 조성을 마쳤다. 태학산에 이어 문을 여는 유아 숲 체험원은 청당동에 조성된 청당2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체험원 도심 내에 위치한 ‘근린공원의 수목들’, 자연재료를 활용한 밧줄놀이, 짚라인, 나무블록놀이대 등의 ‘체험놀이 공간’, ‘동식물 관찰 공간’, ‘교육 공간’, ‘안전시설 및 휴게시설’ 등 다양하게 꾸며졌다.

▼ 태학산 유아숲 체험원



천안시, 주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공원 조성

2020. 01. 29. | 천안시 | 공원녹지과

천안시는 주민이 직접 노후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주민참여형 공원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공원을 선정하고, 설계단계는 물론이고 초하류 식재관리, 공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공원 조성 이후 공원 운영과 관리에 주민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천안시는 먼저 시범사업으로 2개소 대상지를 공모한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주민들의 참여율에 따라 사업을 지속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 공원에 대한 애착심이 향상되고, 기존 관중심의 획일화된 공원이 아닌 실제 생활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공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안시, 남산지구 천안고가 하부 복합문화공간 준공

2020. 02. 19.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가 「천안고가 하부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를 2020년 2월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직동 일원 천안고가 하부의 유휴공간에 녹지·휴게광장, 마을공방 등의 조성, 주차장 정비, 화장실 및 조명 설치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새롭게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은 2020년에 조성 예정인 남산공원 및 천안천 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남산지구의 녹지축을 연결하게 되며, 버스킹 공연,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남산·천안천 공원, ‘도시재생’으로 재탄생

2020. 04. 07.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가 남산공원 및 천안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를 통해 ‘남산공원’에 오룡쟁주 테마를 활용한 스토리가든, 야생화원, 문화광장, 야외공연장, 건강 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다가동 일대에 위치한 천안천 어린이공원에는 체험학습 공간, 치유 커뮤니티 공간, 친수놀이 공간, 생태연결 공간 등 4가지 테마 공간으로 구성되며, 주민들이 직접 조성하는 한 뼉 텃밭, 체력단련 시설, 어린이 물놀이 시설, 수변 데크 등이 들어서게 된다.

▼ ‘남산공원 및 천안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공주시, 「상권 르네상스」 80억 공모사업 선정 쾌거

2019. 12. 18. | 공주시

공주시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5년간 거점 공간 조성, 테마 구역 설계, 문화·예술 공연 등 상권 특색을 반영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백제 역사 테마 거리’ 및 ‘공주 알밤 한우 특화 거리’ 조성, ‘제민천 문화예술광장’ 조성, ‘산성시장’ 클린 환경개선, ‘고맏나루 브랜드몰’ 조성 등 본격적인 환경개선에 돌입한다. 또한 중동 활성화 구역 내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 지역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산성시장 내 낙후된 점포를 선정해 클린 환경개선을 실시한다.

논산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내동 먹골지구’ 선정

2020. 03. 06. | 논산시

논산시가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내1동은 ‘꽃향기, 먹향기, 사람향기’ 가득한 소통 공간 먹골을 주제로 노후 창고 리모델링을 통해 먹골 소통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빈집철거 및 쌈지공원 조성으로 경관을 개선하고, 휴먼게어,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실시해 더불어 살아가는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논산시는 추진체계 정비 및 현장포럼 운영을 통해 마을 기초조사, 마을주민포럼, 선진지 견학,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 특성 및 개발 잠재력을 분석한 뒤 기본구상과 세부계획을 수립해왔다.

두계천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밑그림 완성

2020. 01. 16. | 계룡시 | 안전총괄과

계룡시는 「두계천 환경정비계획 및 산책로 연결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다. 이번 용역은 신도안면 작산교에서 두마면 과선교까지 7.5km 하천구간 정비와 산책로 0.75km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예산과 시기 등을 검토하여, 제방부, 사면부 환경정비를 단기

사업으로, 둔치 부지 환경정비를 장기사업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 장옥, '다목적 광장'으로 변신

2019. 12. 06. | 당진시

당진시 송악읍 소재 '기지시 옛 장옥'이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 광장으로 재탄생했다. 「송악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낙후된 옛 시가지를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편의 시설 등을 확충해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추진됐다. 다목적 광장 조성 외에도,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마을 안길 정비사업, 한전 지중화 사업, 송악 교육문화 스포츠센터 건립비 지원,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진행했다. 향후 다목적 광장은 플리마켓 운영과 민속축제 등 다양한 지역행사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 '다목적 광장'



당진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착수

2019. 12. 11. | 당진시

당진시는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계획 수립을 통해 상위 계획, 생활 SOC 공급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진 전 지역에 대한 지역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주요 영역 구분, 공간환경전략 계획의 중점 추진 권역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정된 중점 추진 권역에 대해서는 기초현황 조사와 분석이 이뤄지며, 조사 내용, 잠재력, 현안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미래상을 설정하게 된다. 또한 해당 권역의 경관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공간 구조적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3차원적 디자인 관리방안도 제시한다. 이밖에 중점

추진 권역에 대한 우선 추진 사업 선정, 주거지역의 디자인 관리계획 수립 등도 이루어진다.

임도 조성과 관리는 당진처럼

2019. 12. 27. | 당진시

당진시가 당진시 석문면에 위치한 삼각산 일원에 임도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와 산악 레포츠 활동 장소가 되고 있다. 당진시는 임도를 개설하면서 효율적인 임도망 배치에 노력하였으며, 내포 문화 숲길, 등산로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임도 주변에는 자작나무와 산수유, 왕벚나무 등의 나무를 심었으며, 차를 돌릴 수 있는 장소, 대피소, 정상 부근 휴게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산을 찾는 내방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당진시 경관, 모두가 함께 만든다.

2020. 02. 19. | 당진시

당진시는 「당진시 경관자원조사 결과 활용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당진시는 지역 내 경관자원을 발굴하고 보전·활용하기 위해 '일반 경관자원 자료집'과 21개의 우수 경관을 담은 '우수 경관자원 자료집', '경관자원 정보' 등의 결과물을 완성했다. 조사 결과물은 당진시 경관계획 재수립에 기초 자료로 사용되며, 각종 계획 및 사업과의 연계, 경관 시민참여단·사진전과 같은 시민참여에도 활용된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경관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적 우수경관 요소를 각 부서의 추진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다양한 활용 계획을 도출했다.

아동친화도시 당진,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 체결

2020. 04. 10. | 당진시

당진시는 「학교놀이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3개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2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아동의 놀 권리 실현, 아동 중심의 놀이 공간 개선, 놀이 허용적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당진시는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이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아동 여가놀이 프로그램(반짝 놀이터, 학교로 찾아가는 놀이터,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부모 인식 개선 교육), 놀이분야 전문가 육성, 어린이놀이터 기획단(놀이 환경 시민조사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금산군, 「2020년 맞춤형 주민복지환경 조성사업」 완료

2020. 04. 27. | 금산군

금산군은 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민복지환경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해당 사업은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됐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1개 마을당 1,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목, 관목, 초화류 등의 수목 식재와 등위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산림 복지 서비스 공간을 제공한다.

▼ ‘2020년 맞춤형 주민복지환경 조성사업’ 완료 모습



서천군, 「국립생태원 연계 거점 관광지」 시범운영 준비

2020. 12. 26. | 서천군

서천군이 추진 중인 「국립생태원 연계 거점 관광지 조성사업」이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상업시설 2개소, 농산물 직거래장터 3개소를 운영한다. 시범운영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정상운영 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목표이다. 한편 국립생태원 연계 거점 관광지는 상업시설, 특산물 판매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기타 편의시설로 구성된다.

금마면, 벽화로 되살아난 굴다리 ‘작은 미술관’

2020. 04. 03. | 홍성군

홍성군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금마면 평촌마을의 ‘굴다리에 만드는 작은 미술관’이 완료됐다. 금마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벽화 디자인을 위한 회의를 열고,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화양리 평촌마을로 들어가는 굴다리에 금마면을 상징하는 벽화를 주민과 함께 그려 넣었다. 벽화는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바탕으로, 독립 만세 운동의 성지인 금마면을 상징하는 독립운동가의 모습, 금마면 철마산의 모습 등을 그려 넣어 굴다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금마면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홍성군, 곳곳에 가족 친화형 놀이터 조성

2020. 04. 09. | 홍성군

홍성군이 관내 전역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우선 광천읍 대평리에 추진 중인 ‘홍성 북학문화창업 공간’에 ‘잇슈 놀이터’를 금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잇슈 놀이터는 영유아·아동의 자연 친화형 놀이가 가능한 실내 자연 놀이터와 부모를 위한 북카페 등으로 꾸며진다. 또한 남장골 어린이공원과 홍예공원 일원 등 2개소에 ‘기후변화 에너지 체험 놀이터’를 상반기 내 조성한다. 자가발전 체험기구를 활용한 옷놀이나 자전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녹색 놀이터로, 이를 통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홍북읍 신경리 일원에는 ‘신한옥형 아동 숲 체험원 창의 놀이터’를 조성한다. 전통 및 자연놀이 시설, 야외 생태체험 학습장, 과학 놀이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중부권 대표 친환경 놀이시설 및 생태체험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군 예당호, 명품관광지로 거듭난다!

2020. 02. 26. | 예산군

예산군은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예당호 음악 분수대 조성사업」은 부력식 음악

분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야간조명과 워터스크린을 갖추게 된다. 「예당호 착한 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팜센터, 숙박시설, 치유농장, 전망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예당호 옛고을마당 조성사업」은 옛고을마당과 휴게 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예당호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되면 차량으로 인한 예당 관광지지의 교통 혼잡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



예산군, 농촌 신활력 플랫폼 5월부터 본격 착공

2020. 05. 13. | 예산군

예산군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농촌 신활력 플랫폼’ 신축공사를 5월에 본격 착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농촌 신활력 플랫폼 조성, 민간조직 발굴·육성, 행복플러스 학교(기초·심화) 운영, 민간협력그룹 자립 지원,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추진단 운영 등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농촌 신활력 플랫폼 신축공사는 구 예산군청 별관 일원에 1층 규모로 민간조직을 연결하고 정보공유와 소통, 교육과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역 커뮤니티 컨트롤타워 역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정착지원 공간, 주민 공유공간 등으로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교류·문화 공간이 될 전망이다.

▼ 예산 ‘농촌 신활력 플랫폼’ 조감도



태안군, ‘조선 진성(鎭城)의 원형’ 안흥성 종합정비한다!

2019. 12. 16. | 태안군

태안군은 「충남 기념물 제11호 안흥성 종합정비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안흥성의 진정성 유지, 안흥성의 보편적 가치 유지, 문화재적 가치 강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등을 정비계획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성벽 및 성문 보수·정비, 건물지 및 기타 유적 정비, 탐방로 및 안내시설 정비 등의 종합배치계획과 함께, 토지 매입 계획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성벽 및 성문 정비계획, 건물지 정비계획, 수목 정비계획, 발굴조사계획 등을 할 예정이다.

태안군 5개 어촌어항, 「어촌뉴딜 300 사업」 선정! 총 사업비 406억 원 확보 래거!

2019. 12. 16. | 태안군

태안군은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에서 ‘대야도항’, ‘만대항’, ‘만리포항’, ‘백사장항’, ‘개목항’ 등 5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야도항’은 ‘생태·경제·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섬 속의 섬 대야도’라는 테마를, ‘만대항’은 ‘희망과 감동의 서해 땅끝마을, 만대(萬代)로 이어지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만리포항’은 ‘아름다운 해변과 즐거움이 가득 찬 만리포니아’라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백사장항’은 관광 어항 활성화를 위해 ‘풍부한 자원·천혜의 경관 태안의 관광 대쇄(대하 새우) 마을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개목항’은 전국 최대의 독살(전통 어로 방식) 생태 어촌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태안읍성, 도지정문화재 사전검토 가결!

2020. 03. 13. | 태안군

태안군 '태안읍성'이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사전검토 결과 '가결' 됐다. 앞으로 태안읍성은 30일간의 문화재 지정 예고 공고(3월) 후,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지정 심의(6월)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로 최종 지정(7월)될 예정이다.

마을만들기

공주시, 「2019 도량살리기운동」 '우수기관' 선정 영예

2019. 12. 17. | 공주시

공주시가 「2019 도량 살리기 운동」 평가결과 우수 도량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 이번에 우수 도량으로 선정된 '정안면 쌍달리 달원달동천'은 농촌체험마을 및 마을회관에 인접해 있는 도량이다. 여울 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으로 자연과 생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여 주민 접근이 용이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민간단체 및 주민 등과 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다. 또한 지역주민 교육과 '도량 집중 정화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온 점이 인정을 받아 우수 도량에 선정됐다.

공주시, 「깨끗한 공주·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큰 호응

2019. 12. 21. | 공주시

공주시는 「깨끗한 공주·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역 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본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상반기 청결의 날을 운영한 것이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가정을 방문하여 50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한 바 있다. 또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 등 기초 환경 교육을 실시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교육이 주민 의식 개선 및 깨끗한 공주 만들기 붐 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 클린 구역 지정 운영, 청소

사각지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재활용품 전용 봉투 사용 활성화 및 숨은 자원 찾기 행사, 쓰레기 투기 장소 화단 조성, 대 주민홍보 활동 전개 등의 시책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공주시 신관동, 시민단체 15곳과 「클린신관운동」 협약

2020. 02. 04. | 공주시

공주시 신관동이 「2020 클린신관운동 협약식」을 체결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신관동 가꾸기에 본격 돌입한다. 「클린신관운동」은 신관동의 특수시책 중 하나로,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릴레이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며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서게 된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내 집·내 상가 앞 청소하기 등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도모하고, 관광객들에게 세계유산도시에 걸맞은 좋은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주시 탄천면,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에 화단 조성

2020. 03. 14. | 공주시

공주시 탄천면이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 일원에 화단을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탄천면은 불법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돼 미관을 해쳤던 '안영2리' 버스정류장 옆 공터에 화단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터의 쓰레기를 수거한 뒤 잡초를 제거하였으며, 그 자리에 팬지를 식재했다. 탄천면은 이번 화단 조성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주민들의 인식전환, 내방객들에게 아름다운 마을 이미지를 제공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에 화단 조성



아산시, 6년 연속 「충청남도 도랑 살리기 운동」 우수 기관 선정

2019. 12. 16. | 아산시

아산시가 6년 연속 「충청남도 도랑 살리기 운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산시는 실개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도랑 살리기 운동을 진행 중이며, 그동안 마을의 수생태계 복원, 마을공동체 회복, 친환경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 등을 추진하여 호평을 받았다. 한편 이번에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느릅실(유곡3리)마을은 도랑 살리기 운동,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 등을 추진했다. 특히 「희망마을 선행사업」과 연계 추진해 방치된 유휴지를 주민의 휴식공간과 아이들의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한 것은 기존 사업방식을 발전시킨 하나의 사례로 뽑힌다.

아산시, 「2020년 마을만들기 사업」 인큐베이팅 과정 운영

2019. 12. 19. | 아산시

아산시가 총 3차에 걸쳐 「2020년 마을만들기 사업」 인큐베이팅 과정을 운영했다. 2019년 처음으로 신설한 본 과정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유형별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공무원 및 전문가의 협업 지원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는 2018년과 달리 선(先) 컨설팅, 후(後) 공모로 진행하여 공모에 관심 있는 공동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2020년 주민참여 마중물 사업」에 공모할 경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뤄지던 사업방식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여 주민이 서로 협력해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진 난지도권역 어촌뉴딜사업비 20억 5천만 원 추가 확보

2020. 01. 10. | 당진시

당진시가 「난지도 권역 어촌뉴딜 300」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소풍 가는 난지섬’이란 주제로

4계절 내내 지속가능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사업 계획은 선착장과 안전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 구축, 소난지섬 여객편의시설, 대난지섬 어업센터, 체험장 가는 길, 정주 여건 개선, 주민 및 섬 브랜딩 프로그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진시는 이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후 2020년 안에 각종 사업을 발주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진시, 도시재생활동가 양성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한다

2020. 02. 14. | 당진시

당진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교육’ 기본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기본과정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심화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화과정 수료자는 향후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활동가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도시재생 활동가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이들이 행정과 협력적인 관계를 원활하게 맺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당진형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 송악읍 고대 어촌계 청결인증마을 현판식 개최

2020. 04. 13. | 당진시

당진시는 「우리 마을 해양쓰레기는 내가」 평가에서 ‘청결 인증 마을’로 선정된 ‘송악읍 고대 어촌계’가 인증패 현판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고대 어촌계는 마을 자체 정화 활동을 비롯해 시에서 주관하는 ‘바다 대청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해양쓰레기를 모아두는 집하장을 깨끗하게 관리해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확보한 사업비는 「마을 환경정화 숙원사업」 등 어촌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도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계획이다.

금산군, 「국가균형발전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2020. 05. 08. | 금산군

금산군이 「균형발전사업 평가」 ‘일반농산어촌개발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먼저 사업기획 단계에서 사업목적과 지자체 특화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한 점, 그리고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을 위해 합리적 노력을 한 점, 사업 시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금산군은 이외에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비롯해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마을종합정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농촌 개발 분야에서 예산 440억 여 원을 확보해 농촌 마을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에서도 성과를 보여줬다.

부여군 ‘송정 그림책 마을’ 주민참여 혁신모델 인증제 선정

2019. 12. 19. | 부여군

부여군 양화면 ‘송정 그림책 마을’이 「2019년 주민참여 혁신모델 인증제」 인증 단계로 선정되었다. 이에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인증패 수여와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다. 부여군에서 운영 중인 ‘송정 그림책 마을’은 평균 연령 80세인 고령의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의 문화·생태·이야기 자원을 기반으로 책을 만드는 ‘내 인생의 그림책’이란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금까지 23권의 그림책을 출간한 바 있다. 또한 이야기 찾 집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 1만 5천여 명이 넘는 수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며 부여군의 대표적인 체험 마을로 떠오르고 있다.

부여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2020. 03. 10. | 부여군

부여군은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부여군 구룡면 논티 2리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구룡면 논티 2리 마을 주민들은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강한 생활개선 의지로 공모사업에

참여해 최종 선정되었다. 향후 취약한 생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마을, 다시 생동하는 마을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서천군 국민디자인단, 「리빙랩 프로젝트」 시범마을 선정

2020. 02. 17. | 서천군

서천군 국민디자인단이 마산면 신장리를 「리빙랩 프로젝트」 ‘쓰레기를 부탁해’ 시범마을로 선정했다. 국민디자인단은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마산면 주민자치회에서도 쓰레기 문제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민디자인단의 전문적인 코칭과 협조가 이루어질 경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마산면 신장리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청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에 108억 원 투입

2020. 02. 05. | 청양군

청양군이 2020년 「청양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농산어촌 개발에 모두 108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사업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청양읍, 남양면, 장평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청남면, 목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청수 1지구, 죽림지구, 화강 지구 및 신규 2개 지구의 「자율 개발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이다. 청양군은 이 사업을 통해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낙후된 지역의 거점기능을 강화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활성화 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홍성군 공리항, 「어촌 뉴딜 300 사업」 사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2019. 12. 18. | 홍성군

홍성군은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서부면 공리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어촌 뉴딜 300」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기반시설정비 분야로 공리 어울림 센터, 가로등 및 방범 CCTV 설치 등의 ‘주민편의 시설 확충사업’, 어선 여객선 접안시설 설치 등 ‘어촌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리항만의 특화사업으로는 관광자원개발 분야로 가두리 양식장 체험 등을 조성하는 ‘천수만 놀 공리 해상파크 조성’과 해변 조망 명소 조성을 위한 ‘공리포구 명소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그밖에 「마을 경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리 해안가로 경관정비 사업’과 ‘바닷가 마을 커뮤니티 정원 만들기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와 마을기업 육성, 마을 호텔 운영 등의 소득 창출 사업을 진행하여 마을의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천안시, 공중선 제거로 파란 하늘 되찾는다!

2020. 02. 17. | 천안시건설도로과

천안시는 ‘문화로’ 및 ‘공설시장2길’을 포함한 동남·서북구 4개소에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구간의 지중 관로 작업, 전선매설 및 지상기기 설치, 선로 절체 작업, 전주 및 통신주 철거 등의 사업절차를 이행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강풍으로 인한 전신주 전도 우려 불식은 물론이고, 도시미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시, 22억 원 투입 방법용 CCTV 설치 추진

2020. 02. 18. | 천안시 | 정보통신과

천안시는 2020년 CCTV 450여 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불량 또는 노후 CCTV도 최신형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천안 서북·동남 경찰서와의 협의 및 읍면동 CCTV 선정위원회를 통해, 관내 범죄 취약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153개소를 CCTV 신규 설치 대상지로 선정했다.

천안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집중 설치

2020. 03. 27. | 천안시 | 교통정책과

천안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응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 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무인 단속 카메라 33개와 교통신호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 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외에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집중한다. 횡단보도 대기 공간의 시인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옐로 카펫도 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함께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차량 충돌을 막기 위한 노상주차장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 충청남도 최초 불법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

2020. 05. 01. | 천안시 | 건축디자인과

천안시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 시스템은 현수막, 전단지 등 각종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경고 메시지를 연속해 전달하는 자동 발신 시스템이다.

공주시, 행정안전부 「생활SOC 간판개선 공모사업」 선정

2019. 12. 31. | 공주시

공주시가 「생활SOC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생활SOC 간판개선사업」은 게이트볼장 22개소, 기타 2개소 등으로 관내 체육시설 24개소의 간판을 지역 및 시설물의 특성을 살린 간판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아산시, 주민 의견 반영한 새로운 클린하우스 설치

2019. 12. 27. | 아산시

아산시는 열악한 쓰레기 배출 장소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11곳에 클린하우스(쓰레기 집하시설)를 추가 설치했다. 추가 설치된 클린하우스는 종량제 봉투 수거함, 재활용품 수거함, 비 가림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클린하우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존 클린하우스의 단점으로 지적된 개방형 형태가 아닌, 여닫이문이 부착된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율이 낮아지고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날림 현상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민 의견 반영한 클린하우스



논산시, 어르신 안전 위해 관내 모든 경로당에 안전시설 설치

2020. 02. 21. | 논산시

논산시가 관내 모든 경로당 화장실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관내 경로당 516개소에 대·소변기 안전손잡이,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확대 설치

2020. 05. 07. | 당진시

당진시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확대했다. 각종 행사와 정책홍보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대로변 또는 산책로 등에 1m의 낮은 높이로 1열을 부착하게 되어 있어 시인성이 높으며, 장소 선택이 용이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나무, 끈 등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풍압으로 인해 느슨해지거나 휘날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시 미관을 관리할 수 있다.

청양군, 방범용 CCTV 안심벨 설치 완료

2019. 12. 02. | 청양군

청양군이 주민안전과 방범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187대를 추가 설치하고 60곳에 안심길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비상벨을 누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되며, 관사가 CCTV로 위험 상황을 확인해 경찰 신고와 출동으로 이어진다. 특히 현장에 설치된 스피커와 마이크로 위험당사자와 관제사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주민들에게는 안심을 주고 동시에 범죄 발생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예산군, 관내 전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물 설치

2020. 03. 30. | 예산군

예산군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전 경로당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예산군 내 모든 경로당 화장실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며, 화장실 세대면과 바닥에 미끄럼 방지 깔판이 설치된다. 한편 예산군은 미끄러운 타일이 있는 화장실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